•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제 684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6월 18일(음력 5월 15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불자들도 촛불 들었다
3 26개 불교단체 촛불집회 동참


"공교육 정상화 이룰 것"
6 서울시교육감 출마 박장옥 교감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17 선지식-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태국문화와 만나다"
19 전통인형극 '곤' · 영화 '카르마'

걸음 걸음 피어난 '참회의 꽃'

봉정암 10보1배 동행기

6월 10일 조계종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의 제11차 봉정암 10보1배 참회기도에 42명의 신도들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아침 7시 부산을 출발해 오후 1시경 설악산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다. 이들은 첫날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 약 5km에 이르는 산길을 오른 뒤, 오세암에서 쉬었다. 이튿날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 약 4km를 10보1배로 참회의 길을 나섰다. 72시간 동안 14km의 산행과 4km의 10보1배는 한 걸음 한 걸음 참회의 꽃을 피웠다.


봉정암이 보인다 6월 11일 오세암을 출발한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의 봉정암 10보 1배 참회기도 순례단이 5시간이 넘는 고행 끝에 드디어 봉정암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섰다. 박재완 기자

부산 불광사 신도 42명 72시간 대장정 참가
66세 어르신·다리 불편한 신도도 무사회향

참회가피도량 불광사 주지 보광스님은 10악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를 참회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회에 걸쳐 10보1배 참회기도를 봉행해왔다. 이번 순례단 출정에 앞서 스님은 "봉정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부처님 진신 뇌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불자라면 평생 꼭 한번은 가고 싶은 도량이지만 워낙 멀고 험한 산길이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며 올라가기에 10보1배는 좋은 방편이다"며 기꺼이 따라와 준 신도들을 격려했다.

버스는 6시간을 달려 백담사에 도착했다. 백담사를 둘러본 후 오세암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순례단은 걸음마다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인간과 자연의 상생, 화합, 평화를 염원했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박묘순(44)씨는 "불자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성지라고 해 늘 가고 싶었다"며 웃었다. 8번째 봉정암 순례에 따라나선 김소순(63)씨 역시 "늘 걸어서 올랐지만 이번에는 꼭 10보1배로 봉정암을 오르겠다"며 10보1배의 각오를 다졌다.

오세암으로 향하는 산길은 경사가 45도는 됨직할 만큼 가팔랐다. 처음 산길에 올랐을 때는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던 이들도 30여분이 지나자 말수가 줄어들었다. 자기와의 싸움, 고행이 시작됐다.

순례단은 영시암을 거쳐 4시간여를 걸어 오세암에 도착했다. 무릎연골, 발목인대, 교통사고로 인한 허벅지 부상으로 다리가 아픈 박희숙(48)씨는 "수차례 수술해 다리가 아프지만 봉정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힘들었던 산행을 말했다. 또 최고령 참가자인 이덕연(66)씨도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란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외며 걸었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모두들 내면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오세암에서 저녁공양을 마치고 김기범 법사는 순례단에게 "내일 있을 10보1배는 개인의 신심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하면 다치게 돼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도 있으니 자기 능력에 맞춰 융통성 있게 10보1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불자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저녁 예불과 108다라니기도까지 모두 마친 뒤 몸을 뉘었다.

온종일 걸은 피로 때문에 눕자마자 어디선가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관세음보살바위가 내려다보는 오세암에서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밤이 깊어갔다.

이날 밤 기온은 5℃까지 내려갔다. 두꺼운 이불을 덮었지만 몹시 추웠다. 이번 순례에서 처음 만나 100년 지기처럼 가까워진 이들은 곁에서 서로에게 화덕이 되어주었다.

6월 10일 아침 6시. 고행의 아침이 밝았다. 오세암에서 준비해 준 따뜻한 미역국으로 언속을 녹이고 몸을 푼 뒤 다시 길을 떠났다. 10보1배의 대장정이다.

등산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매일 하던 절이지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1배, 1배를 거듭하면서 허벅지와 팔 근육이 뭉직해짐을 느끼며 쑥스러운 감정은 사라졌다. 온몸으로 전달되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였다. 한걸음에 살생으로 지은 죄를, 또 한 걸음에 투도로 지은 죄를, 세 번째 걸음에 사음으로 지은 죄 등…. 내딛는 걸음에 10악을 지은 스스로를 참회하며 10보를 나아갔다. 그리고 1배하며 10가지 악업을 참회했다. 순례단이 산길을 지나는 동안 등산객들이 경외심과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담아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절을 할 때 땅에서 일어날 때 먼지가 코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곧 봉정암을 향해 올라간 순례자들의 흔적이니 이마저 뜻 깊은 경험이 된다.

봉정암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다리가 무거워 한걸음 떼기도 힘들 정도였고, 어깨에 맨 배낭조차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미 10회나 10보1배를 해온 김기범 법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 온 힘을 쏟고 집중하다 보면 무념무상이 된다"며 "괴로움에도 단계가 있고, 참회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에서 쉬어가는 코너인 것"이라며 일행을 격려했다. 〈10면에 계속〉 박지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 '이상시문학상' 제정

상금 2천만원 '시와세계' 공동 주관…선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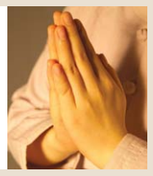
'현대불교'가 시 전문 계간지 〈시와세계〉와 공동으로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다.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 4월 17일 일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지향한 문학적 태도는 온건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과격한 모더니즘이고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요약된다. 그의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미적 부정과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문학, 글쓰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모더니스트들과 구별되고 이런 차이가 아방가르드 정신과 통한다. 물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끝났다. 그러나 광의의 아방가르드, 전위는 살아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소수의 전위가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는 문학과 예술의 제도성에 도전하고 답답한 전통과 인습과 미학을 부정하고 일상과 예술, 일상과 문학의 단절을 즐기는 부르주아 시학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한다.

이 시대 우리 시가 답답하고 핏기가 없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의 전위성, 도전성, 실험성, 한마디로 아방가르드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시정신, 문학정신, 예술정신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이 요구된다. 한편 21세기 우리 시의 전위는 한물 간 서양 아방가르드의 모방이 아니라 동양적 사유를 이론적 토대로 할 필요가 있고 선(禪)은 우리시의 후기 현대성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처한 21세기 서양 철학의 동양적 대안이고 이 시대 방향을 잃은 우리 삶의 화두이다. 요컨대 선은 우리 시의 아방가르드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토대이고 실천적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한물 간 모더니즘이 아니라 개방적 아방가르드이다. 따라서 '이상시문학상'은 이상의 단순한 모방이나 아류가 아니라 이상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선불교적 감성과 직관과 사유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대시, 시조, 동시, 가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 지적 모험, 치열한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시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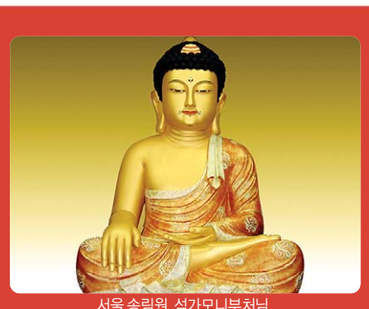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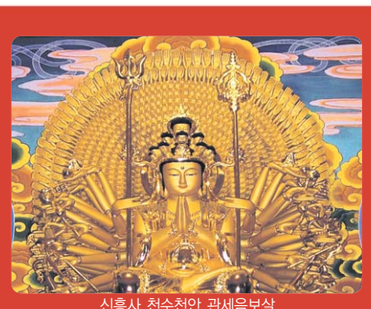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음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농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죽비와 목탁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

불교,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나

6월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70만명이 운집, 장관을 이뤘다. 이날 26개 불자단체들 또한 서울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로 나섰다. 스님들이 거리행진을 펼치고, 촛불집회에 등장하자 기자 · 시민들이 일제히 몰려왔다. 학생들은 이런 스님들이 신기한지 휴대폰 사진을 찍기 바빴다.

스님과 종무원, 불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민심과 호흡하는 모습, 무척 보기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나선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야 하다니 영 개운치 못했다.

그 동안 불교계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도 늘 한발 늦게 관심을 보였다. 종단 차원에서, 사회적 사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논평을 낸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정계 '윗분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으로 얽힌 일이 많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적잖은 부담감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 그들 종교의 상징과도 같은 명동성당을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내주었고 이는 곧 가톨릭 교세 성장의 동력으로 되돌아갔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어 중생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함께'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대승불교를 따르고 있는 한국 불자라면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할 화두다.

원효 스님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자세로 살았다. 원효 스님은 교학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중생 속에서 함께 호흡했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종단과 단체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중생 없이는 부처도 없다. 중생의 실제적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민심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사회이슈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 종단에서는 방송 · 언론 등 미디어 전문가와 정치 · 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지소선후(知所先後)면 즉근도의(卽近道矣)'라 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는 말이다. 불교의 사회적 대응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우리 불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그것은 '민심의 소리'가 아닐까.

조계종 '율원령' 제정 공포

1년간 심의 거쳐 확정…승풍 진작 · 율학연구 활성화 기대

조계종 승가전문교육기관의 하나인 율원은 예로부터 계율을 통해 승가 기강을 세워왔다. 신라시대 자장 스님이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운 이래 해인사 · 송광사 등 총림을 둔 큰 절에는 율원이 있어서 한국 불교의 계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조계종은 종법인 교육법 제92조에서 제97조에 의지해 율원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6월 10일 열린 제97차 조계종 교육원회의에서 6월 5일자로 '율원령' 공포를 확정했다.

5일 공포된 율원령은 2007년 7월 입법예고 후 1년여 동안 수차례 심의를 거쳤다. 송광율원, 해인율원, 영축율원 등 7곳의 율원 대표자가 율원총칙, 설립과 인가, 교역자, 율원 운영, 학사운영 등 6장 40조의 율원령을 심의해 제도화했다.

이 율원령에 따르면 교육원의 인가를 통해 율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단 기존 율원은 율원령에 의해 인가된 것으로 경과조치 했다. 율원의 직제 및 율주, 율원장, 율감의 역할도 규정했다. 율원 과정은 전문과정 4인 이상 10인 이하, 연구과정 2인 이상 10인 이하로 했다. 전문과정을 마친 스님은 중강자격과 대학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연구과정을 마친 스님은 강사자격을 받는다.

교역자 규정도 포함됐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 스님으로 종사(비구니 명덕) 법계를 수지하도록 했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 스님 중 전계를 받고 율원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으로 율원 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율학 관련 박사과정 수료자, 율원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중강으로 3년 이상 강의한 경우, 율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강으로 3년이상 강의한 스님으로 한정했다.

율원에는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두며, 2년 임기의 9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강율원 율원장 적연 스님은 "<사분율> 중심으로 교과과목도 정비되어 정식 승가교육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습의사 활동도 자격을 인정받아 율원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율사스님들은 "수행연한을 인정받은 학림, 승가대학원과 달리 승가고시 등에 혜택이 없었던 것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율원령 제정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강조하는 포살과 결계 등 수행종풍 진작운동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율원령 제정으로 그간 제도 미비로 수행이력을 위해 기피했던 승가의 율학 연구가 새 전기를 맞았다.

한편 학림의 학제를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으로 개편하고,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학림령 개정안도 6월 5일자로 공포됐다. 교계는 이번 율원령 제정과 학림령 개정으로 조계종의 승가교육 인프라가 굳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태고종 충북교구 연수원 개원법회

태고종 강원교구와 충북교구가 이전법회와 연수원 개원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운)은 6월 10일 춘천시 소양로1가 법왕사 앞 빌딩 3층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교구종무원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충북교구종무원(원장 원해)은 6월 9일 중앙종회 의장 상명, 부의장 원봉, 사정원장 운공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개원 및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종무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연수원은 198m² 규모다.

손효선 기자

"나무 심어 한반도 푸르게 가꿔요"

민추본 창립 8주년 기념 '통일나무심기 운동' 선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창립 8주년을 맞아 6월 8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념 법요식 및 '통일나무심기 운동'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추본 본부장 명진,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과 '겨레의 숲' 상임이사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추본이 창립 8주년을 맞아 '통일나무 심기 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은 한반도 모형에 나무를 심고 있는 민추본 관계자들의 모습.

통일나무심기 사업 현황 및 계획 발표, 나무심기 상징의식,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기념 강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명진 스님은 "통일나무심기 운동은 북한사회가 갖고 있는 '식량난-벌목-삼림황폐화-홍수피해-식량난'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이 사업을 위해 민추본은 '겨레하나' 등의 대북사업단체들과 연대, '우리겨레 푸른숲'을 결성했다"며 "'우리겨레 푸른숲'은 양묘장 건립 등을 포함하는 3개년(2008~2010년) 계획을 수립, 북한 조림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추본은 양묘장 내 시설양묘온실 1개동 및 부대설비 지원을 맡아 불교계에서 총 2억원을 모연할 계획이다. 민추본은 오는 9월까지 '1가족 10그루 심기', '통일나무 심기를 위한 108배' 등의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금강경' 표준본 편찬 공청회

불교학자·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 한자리에

"구마라집본을 저본으로 택한 것이 옳은가?"

"운문화 작업보다 번역 기본 지침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편찬을 위한 공청회에는 편찬 회향을 앞둔 마지막 공청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청화 스님(교육원장), 현종 스님(불학연구소장)과 연관 스님, 각묵 스님 등 금강경 편찬실무위원, 강원 강사, 불교학자, 국문학자, 시조 시인, 재가불자, 언론계 인사, 청년회 학생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청화 스님은 "<금강경> 편찬사업 마무리로 대중적 공의를 얻고자 마련한 자리다. 물처럼 읽으면 스며들 수 있도록 번역에 힘썼다"고 말했다. 편찬 실무를 맡은 연관 스님도 "대중을 위해서는 평이하게, 부처님 원음을 위해서는 직역을 택했다. 구마라집본과 같은 의역은 선지식들이 할 일"이라고 강연했다.

공청회 발표자들은 크게 ▲용어 통일 등 번역 기본 지침을 묻거나 구마라집 저본 선택을 문제시해 편찬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부류 ▲완성된 편찬본을 존중해 지엽적 의견을 제시한 부류로 나뉘었다.

전재성 박사(한국 빠알리성전협회)는 "2차본인 한문본을, 그 중에서도 구마라집본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것이 한계다. 범본과 한문을 부분마다 달리 의존해 통일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용어 통일의 필요성은 전재성 박사 뿐 아니라 김영두 교수(원광대) 등 다수의 참가자가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쏟아진 의견은 조현춘 교수(경북대 심리학과)가 '<금강경> 번역대회'를 열자고 제안할 만큼 다양했다. 불학연구소가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에 따라 종단 표준본 <금강경>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봉대선사 제26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한국 불교의 큰 별이셨던 경봉대선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어언 2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락호국선원 경봉문도회에서는 밝고 환한 지혜의 등불로
다함이 없는 가르침을 베푸셨던 경봉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2(2008)년 6월 30일 (음 5.27) 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내 용 | 경봉대선사 26주기 추모법회
2008학년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문 의 | (055) 382-7083

영축총림방장 원명 극락호국선원장 고원 경봉문도회장 원산

경봉문도회 제4회 정기 총회
추모법회 봉행 후 오후1시
극락암 무량수전에서 열립니다.

2008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8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동국대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4명
학사과정	11명
중앙승가대	12명
통도사강원	8명
선원	3개소

경봉대종사 제26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북한동포 아픔 함께 나눠요”

화계사, JTS에 성금 전달…연기자들도 거리캠페인 나서

아사 직전의 북한주민들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에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1일에는 화계사(주지 수경)가 서울 서초동 JTS회관 소강당에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화계사는 6월 5일부터 1주 동안 사내(寺內)에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연했다. 1000만원이면 밀가루 14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화계사의 성금전달은 북한주민돕기에 대한 사찰 단위 참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기자 김여진씨, 아역배우 주다영 양, 연기자 배종옥씨(사진 왼쪽부터)가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한편 연기자들도 북한동포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나서 화제가 됐다. 연기자 배종옥 · 김여진씨와 북한식량난을 다룬 영화 ‘크로싱’ 아역배우 주다영 양은 6월 12일 서울 인사동에서 직접 모금함을 들고 나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연기자들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현재 북한상황은 1997년 300만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 때와 흡사하다”며 “이대로 가면 올 춘궁기에 최소 20만 명이 아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6월 13일 현재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기 위해 19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김강진 · 노덕현 기자

“中·미얀마에 도움의 손길 전해요”

긴급구호운동본부 명동서 거리모금 캠페인

140여 종교 ·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중국 · 미얀마 돕기 긴급구호 운동본부’(이하 긴급구호 운동본부)가 6월 11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거리모금캠페인은 쓰촨성 대지진과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고통 받는 중국 · 미얀마 국민을 돕고 이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행사다.

이날 거리모금캠페인에서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을 비롯한 긴급구호운동본부 발기인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전단지를 배포, 일반시민에게 중국 · 미얀마 상황을 전하며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캠페인에 앞서 열린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모금활동 사업계획서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ARS모금 및 공익광고 공중파 방영, ‘중국 · 미얀마 돕기 콘서트’ 개최 문제, 각 지역 종교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모금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불국사에서 지역성금 100만원을 보내 왔듯이 지역 사찰, 교회와 연계를 활성화한다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지닐 것”이라며 종교, 시민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보우승가회 와해말라” 태고종 총무원에 촉구

“태고종 총무원은 보우승가회를 와해시켜 징계하기 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보우승가회(회장 도산)는 6월 12일 태고종 총무원의 보우승가회 해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우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태고종 총무원은 행정부원장 명의로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에 공문을 보내 보우승가회 회원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보우승가회 회원들은 각 지방 종무원의 회원탈퇴 강요와 불이익 등의 협박에 현혹되지 말고 각자 태고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의에 대응한다는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신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우승가회는 또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한 신청서에 들어있는 서약서는 현대판 노예 길들이기와 같은 족쇄”라며, “종도들은 종단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일들은 과감히 중앙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기자

불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6.10항쟁 맞아 불교인권위 등 26개 단체 촛불집회 동참

6 · 10항쟁 21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26개 단체들은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및 운화백지화 촉구 법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국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것.


“스님들도 촛불 들었네” 6월 10일 촛불 집회에는 불자들도 함께 참여, 민심과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고시 완전 철회와 전면 재협상 돌입 촉구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각종 공기업 민영화 사업 포기 제언 ▲평화적 국민 집회를 과격 · 폭력 시위라 음해하는 보수언론과 공권력에 의지하는 정부 대처 성토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불교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불교계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장 법안 스님은 “<유마경> 서품에서는 ‘중생이 아팔로 보살의 불국토’라 했다”면서 “불제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광화문까지 거리행렬을 펼치며 70만인파가 몰려든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촛불의 열기는 뜨거웠다. 광주불교대책회의는 광주 원각사에서 특별법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암련,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환경연대, 호남불교문화원, 광주전남포교사단, 원각사 청년회, 육화포럼 등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이 결성한 광주불교대책회의는 이날 원각사 법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와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법회 후 광주 금남로 문화의 전당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또한 부산에서는 종교시민단체 대표단의 삼보일배가 이어졌다.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작된 삼보일배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인 정각 스님과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안하원 목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권경렬 · 김준한 신부 등 10여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 공기업 민영화, 학원 자율화 등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즉각 실시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몸벽보를 직접 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념)는 6월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국 100만명 참여(주최측 집계, 경찰 집계는 12만명)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 문화 행사로 마무리됐다.

김강진 기자 · 양행선 광주지사장

“사탄 눈에는 사탄만 보인다”

추부길 비서관 ‘사탄 발언’에 불교계 등 비난 봇물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사진)이 지난 6월 5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을 겨냥해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발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불교계 등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먼저 추 비서관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스님은 6월 10일 오전 BBS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추 비서관의 ‘사탄의 무리’ 발언과 관련, “절 집안에 무학 대사와 이성계의 일화 ‘불시불 돈시돈(佛視佛 豚視豚)’이 있다. 사탄의 눈에는 사탄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스님(김포 용화사 주지)은 6월 11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에 ‘추부길 목사님께 용화사 주지가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공개반박 편지를 보냈다. 지관 스님은 “추 비서관은 공무원으로도, 목사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6월 9일 ‘청와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논평을 통해 추부길 비서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국방장관과 최종안 논의할 것”

10.27추진위,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면담 요청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학 · 법타, 이하 추진위)가 위원회의 차단급 격상 등을 최종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시행령안 재수정과 국방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6월 11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방부가 수용을 거부한 위원의 차관급 이상 격상과 참여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청 배제를 최종 요구키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국방부가 제정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안으로 불교와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며, 장관면담을 통해 최종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추진위는 6월 18일까지 조계종의 재요청안이 거부될 경우, 추진위의 비상대책위 전환과, 국방부장관 퇴진운동 등 강경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성 명 서

태고종 총무원은 보우승가회를 와해시키고 징계를 하기 위한 비열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태고종 총무원은 행정부원장 김월해의 명의로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에 공문을 보내 보우승가회 회원 여부를 확인 하고 조사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 운산 총무원장스님은 공사석에서 보우승가회를 일부스님들의 친목단체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보우승가회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1. 보우승가회 회원들은 종단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

그동안 보우승가회는 수차례에 걸쳐 총무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스님께 종도들에게 회자되는 의문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서로 질의를 하라고 하여 문서로 보내면 정작 답변이 없고 보우승가회가 근거 없이 종단을 흔들려고 한다고 공사석에서 종도들에게 진의를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음해를 하였다.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하여도 들어주지를 아니하니 언론에 성명서를 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아 회원들을 뒷조사하도록 종무원에 지시를 한다니 과연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들을 위한 총무원인가 아니면 원장개인을 위한 총무원인가

우리는 종단을 염려하고 종단이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실을 종도들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된다.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진상을 밝히라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종도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종도들을 위한일이 아니다.

2.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도 총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태고종은 법란의 와중에서 공권력과 무력에 의해 힘없이 길거리로 쫓겨나 각자 작은 토굴과 한 칸 전셋집에서 출발하였다. 종단이 잘나서 도와 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간절한 기도정진과 열정으로 절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서로의 힘든 처지를 종무원이나 분원 모임을 통하여 위로하고 이해하여왔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한 스님들을 무슨 큰 잘못을 하였다고 조사하고 징계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보우승가회 회원스님들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종단이 잘되도록 작지만 성금을 내서 성북동 총무원을 세웠었고 또한 전승관을 세우는데도 협조하였다.

보우승가회가 전승관 불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여 종도들과 이간시키지 말라. 보우승가회는 친목단체이지만 분명히 보우 승가회 명의의 성금을 냈으며 또한 회원들도 각자 형편껏 성금을 냈다. 또 일부 형편이 어려운 회원은 이번에는 못 냈을 수도 있다. 이번만 잘 해야 태고종도이고 전자에 잘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3. 총무원 행정부원장은 전국의 종무원에 내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징계가 능사인가. 우리는 그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였고 지금도 원한다. 총무원은 종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곳이 아니다. 종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어야 한다.

순수한 애종심에서 종단의 문제를 걱정하는 스님들의 조사는 즉각 철회해야한다. 언제부터 총무원이 행사 때마다 수십 명의 호위승려들을 거느리고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툭하면 일벌백계 징계 운운하는데, 20명의 호위승려 숫자가 부족하여 50명으로 늘린다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내가 해야 정당하고 나만이 종단을 염려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만불순한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태고종이 산다. 뜻있는 종도들의 입을 막는다고 묻히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가.

보우승가회 회원 제위는 각 지방 종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회원탈퇴 강요와 추후 불이익 등의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여 각자 태고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의에 대응한다는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신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찰재등록과 승려분한신청에 대한 정당한 주장

태고종 총무원은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한 신고를 새로 받는다고 각 사찰에 신청서 양식을 보냈다. 그런데 이 신청서에 전국의 많은 종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와 걱정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1.재등록? 분한신고? 일반사찰 주지스님들이나 교임들은 이런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총무원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종도들이 싫어하는 일을 벌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내용도 문제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사찰재등록증과 승려분한 신고서를 보면 사찰 분담금 납부현황, 승려 의무금 납부, 전승관 건립기금, 종단발전 성금 납부현황을 기록하는 곳이 있다.

분담금제도는 이미 금년부터 지방종무원으로 이양되고 총무원은 의무금 12만원만 받으면 된다. 이미 소멸된 제도를 새삼 또 열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전승관 건립기금이나 성금도 총무원에 성금 받은 기록이 당연히 있을 텐데 굳이 또 내용을 쓰라는 이유가 뭔지?

지방의 산간벽지의 사찰뿐 아니라 도시의 사찰들도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앙의 높은 직책에 앉아 계신 큰스님들은 그 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자기들이 서류 한 장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굳이 기록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일선 주지나 교임들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성금을 안낸 곳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압력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서약서는 현대판 노예 길들이기 족쇄인가?

태고종 사설 사암은 기본적으로 총무원의 재산이 아니다. 아마 총무원이 더 잘 알 것이다. 종도로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누구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이 되겠다는 것인가. 내용도 아주 교묘하게 ‘종단에서는 사찰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특히 재산관리. 처분 등은 사찰의 주지(대표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사항은~~,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종단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이에 확인’ 운운, 이 말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주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어째서 종단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7번 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사회법에 호소할 수 있다. 무슨 재주로 막는단 말인가? 무지하고 법을 잘 모르는 종도들을 협박하기위해 엄포를 놓는 가?

정작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태고종은 창종이래 40년 가까이 사설사암의 모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왔다.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종단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배부른 소리가 나오는가?

총무원은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사찰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종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종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개 사찰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민원이나 복지 분야 국제적인 교류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종도들도 잘 살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종단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일들은 종무원장에게 나서서 과감히 중앙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종도들이 선출한 종무원장이 종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서약서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2008년 6월 12일

한국불교 태고종 보우 승가회 회원일동

2008년 회원 모집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전국의 태고 종도 여러분께 알립니다.
보우 승가회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 불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호교 애종하는 승가 단체입니다.

불교 발전과 정법구현을 염원하는 본회의 취지에 찬성 하시는 제방의 대덕 스님들에게 본회의 가입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가입 방법 : 직접 전화 접수나 자필 가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번지
전화 : 02)763-5213~4 팩스 : 02)747-9290
E-MAIL : boowoosam@yahoo.co.kr

보 우 승 가 회 회장 이 도산 합장

덕양선원 '천수대비주 수행도량' 우뚝

두번째 10만독 성취 기념법회…신도들 집중수행 '원동력'


6월 8일 제2회 천수대비주 10만독 성취를 이룬 덕양선원 신도들과 선원장 법상 스님.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으로 수행과 포교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 낸 사찰이 있어 화제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도심에 자리잡은 덕양선원(선원장 법상)이 바로 그 곳이다.

덕양선원은 6월 8일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천수대비주 10만 독 성취 기념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300여 신도가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20만 독을 성취한 도영 김갑수(55), 19만 독을 성취한 도명 이준오(50) 거사, 16만 독을 성취한 여안 변은진(47) 보살 등 10명의 신도들이 다라니 10만독 회향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10만 독을 성취한 도립 심재덕(52) 거사는 "마음 속의 불안, 초조 등 온갖 어둠을 털어내고 점점 더 맑은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했고, 12만 독을 성취한 감로원 방희근(49) 보살은 "다라니 정진을 통해 만성신부전증과 불면증의 고통을 이겨낸 것은 물론 자식이 대학교에 합격하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등 신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덕양선원에서는 천수다라니 10만 독은 이제 다라니 정진의 입문과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참 수행자들이 많은 절이 되었다. 신도들은 적게는 1만~10만 독에서부터 30~40만 독, 최고 117만 독(원명화 김순자 보살)에 이르는 천수다라니 정근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최근 100만 독을 성취했지만, 외부로 이름이 알려지기를 꺼려한 박모 거사는 다라니 정진을 일념으로 하는 동안 대비주가 어느새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화두로 변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박 거사는 "90만 번이 넘어갈 때쯤 '듣는 성품을 돌이키는' 반문문성법(返聞聞性法) 수행을 하게 되어 일체종지(一切種智) 중도정관(中道正觀)을 향한 공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도들의 집중수행은 단기간에 덕양선원을 수행전문 도량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신도들이 공식적인 정진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20일. 100일 기도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100일 기도가 끝나자 1000일 기도를 새로 정했고, 그 과정에 다라니 100일 기도를 계속 진행해 왔다. 100일 기도 중에는 7~10일간 하루에 1000독을 하는 가행정진을 수없이 했고, 매주 금요일은 어김없이 철야정진을 했다.

물론 덕양선원은 마음공부와 더불어 보살행에도 적극 나서 안팎이 조화된 수행 및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신도들은 <천수경>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법보시 했다. 마음이 맑고 밝아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진 신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으며, 수행자 자신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졌다. 덕양선원 카페(http://cafe.daum.net/zeol) 운영자인 혜연 황해상(48, · 육군 대령) 거사는 "남모르는 가피를 입어 질병이 낫거나, 고난에서 벗어난 일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매월 공주교도소나 군법당을 후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하루 5시간 40분씩 꼬박 목탁을 치며 정진을 이끌어 온 법상 스님"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대비주 수행을 통해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며 생활속의 정진을 당부했다.

덕양선원의 성공 사례는 도심포교당이 나아갈 방향이 기복 보다는 수행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031)907-7172

김성우 기자



6월 7일 감로사에서 열린 충담선사 열반 10주년 영산재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목정배 동국대 명예 교수.

충담 스님 열반 추모영산재

태고종 감로사서 봉행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하는 소신(燒身)열반에 들어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충담(1913~1998) 선사를 기리는 추모영산재가 봉행됐다.

태고종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7일 등공사리탑(충담스님 부도) 앞에서 '충담 대종사 소신열반 10주년 추모영산재' 및 승가사 이전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충남대선사문도회장 도성,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과 정병국 국회의원, 김언식 디에스디 삼호그룹 회장, 정영희 감로사신도회장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재에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충담 대선사의 소신공양과 한국불교의 희망'이란 논문을 통해 "감로암에서 소신공양으로 열반하신지 10주년이 되는 날 충담 스님의 원력이 시방세계, 한국사회에 새로운 원력과 희망을 점지하는 화염광(火焰光)삼매로 화현하였으니, 우리들도 심핵(心核)삼매의 위력을 발하는 불자가 되어 남북통일과 부처님의 정법 실현하자"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산사에서 漢字공부 어때요

미황·부석사 여름방학 맞아 한문학당 운영

해남 미황사와 서산 부석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한문학당을 연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6월 30일까지 올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과 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의 동참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한문학당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 8월 6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 '참사람의 향기'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9년째를 맞는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과 예절, 문화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참사람의 향기'는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61)533-3521

한편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연다.

한문학당은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엮은 <수심보경>이라는 책을 교재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와 인근 청산리 수목원의 연꽃 축제, 신두리 바닷가 탐사, 반야심경 대장경판 인쇄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041)662-3824.

김성우 기자

"염불은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8주년 기념법회

"염불은 부처님 원력에 섭수되는 길입니다."

청계산 정토사(주지 보광)는 만일염불결사회 8주년 기념법회를 6월 6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 법문을 했다.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장), 김종서 前 덕성여대 총장, 한나라당 주호영, 정옥임, 신영수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정무 스님은 대중들에게 안녕을 묻든 말로 법문을 시작했다.

"안녕하지 못할 때는 염불하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를 구하며 사는 내가 곧 보살이라는 마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염불수행을 시작합시다."

정무 스님은 "삶은 학생의 공부와 같고 유언장은 졸업논문이기에 즐겁게 졸업하자"며 "행복한 삶을 위한 염불은 오염된 물을 정수기에 걸러 먹는 것이 아닌 맑은 물을 떠먹는 것이요, 고해 바다를 건너는 연락선"이라고 강조했다.

젊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세태도 지적했다. 스님은 "죽음을 연장한 노후준비는 의미가 없다. 오늘날 복지는 경로(敬老)가 아닌 천로(賤老), 기로(棄老)다. 가정과 이웃을 위해 남김없이 희생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는 날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한 방법이 염불이다. 한 생각 끊이지 않고 염불하는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법문했다.

이어 만일염불결사회 회주 보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일염불결사 8주년을 계기로 신라시대 염불자의 불국사 창건에 비견되는 불사를 펼치겠다"며, 만일염불결사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만일염불결사회에는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는 기치로 2000년 6월 6일 입제해 2027년 10월 22일 회향까지 1500여 염불행자가 동참중이다.

청계산 정토사를 본사로 장충동 향천선원, 대구 만선염불원, 부산 여래선원 등이 염불결사 도량으로 나섰다. 대구 만선염불원은 신도의 직접 운영으로, 부산 여래선원은 청각장애자 중심의 염불원으로 주지 도은 스님이 모든 법문을 수화로 진행해 유명하다.

조동섭 기자


6월 6일 낙성식을 가진 제천 금강사.

충북지역 여성불자교육도량 문 활짝

충북 제천에 여성불자 교육도량이 마련됐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활안)은 6월 6일 제천시 모산동에 금강선원 부설 여성불자 교육도량 금강사 낙성식 및 불교여자전문대학 개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등 50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활안 스님은 개원식 법문을 통해 "금강사는 자리이타·각행원만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곳에는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복지타운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기공식을 가진 금강사는 60평 규모의 법당과 부처님진신사리 5층석탑, 종각 등으로 조성됐다.

김성우 기자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염불원생 모집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 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입생 · 편입생 및 염불원생**을 모집합니다.

◆ **강원생 모집**(수시모집)
- **치문반** ---------- 00명
- **사집반** ---------- 00명
- **사교반** ---------- 00명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강원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또는 수계증사본) ------- 1 [32기 합동득도자 입방가승]
3. 주민등록 등본(입방후 선암사 전입) -- 1
4. 건강진단서 ---------- 1
5. 은사스님 추천서 ---------- 1
6.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7.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8. 입방비 30만원

◆ **준 비 물**
대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한한사전

◆ **염불원생 모집**(수시모집, 타종단 환영)
- **기초삼보 통청에서 상주권공까지**

실기실습 ---------- 범음범패 (목탁, 태징, 바라, 착복(나비춤), 호적)
모집인원 ---------- 00명

◆ **구비서류**
1. 입학원서(선암사 소정양식) --------- 1
2. 승적증명서 ---------- 1
3. 주민등록 등본 ---------- 1
4. 승복차림 사진(3×4cm) --------- 3매
5. 범죄사실 열람조회서 ---------- 1

◆ **준 비 물**
대가사, 장삼, 발우, 목탁, 필기도구

※ 문의처 : **061)754-5247, 5953 / 011-254-3037**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www.seonamsa.co.kr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장 경담 합장

태고총림 선암사

태고총림 선암사 재적승 승적정리

귀의삼보 하옵고,

선암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신 재적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종무행정상 불편함이 많습니다.
재적스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빠짐없이 전원 동참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 승적사본(총무원 발행)
· 이력서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2. 기 간 : 2008년 6월 23일 ~ 2008년 7월 22일

3.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 문의처 : 061)754-5247, 5953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홈페이지 : www.seonamsa.co.kr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경담 합장

서구인 특성 부합 '실용불교' 확산

해외불교칼럼


미국인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오늘날 불교는 서구사회에 확산되어가며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는 물론 현실인식 및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서구인들은 불자든 아니든 불교철학을 통해 오랫동안 독과점적 신앙체계 하에서 당연시되어온 어이없는 금기와 제약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하는 한편, 이른바 '종교'라는 감옥에 갇혀 억압류가 되어온 '나'를 되찾는 자아복원의 신선한 해방감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불교철학의 보편타당성 및 실용성을 바탕으로 여법(如法)한 수행과 실생활을 병행하고자 다양한 방편을 모색하는바, 그 가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최근 들어 움직임이 두드러진 실용불교(Pragmatic Buddhism)의 출현이다.

미국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실용불교는 서구사회에 점증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한 단면이다. 이는 자칫 참여불교와 혼동될 수 있으나 기본취지와 적용범주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다. 실용불교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싯다르타의 선구적인 계몽사상을 현대 서구인의 생활과 사고에 적절히 원용, 응용하려는 시도다. 이 흐름을 알자면 먼저 실용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잠시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하 간추린 내용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20세기 미국문화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며 간혹 실행주의(practicalism)나 기능주의(functionalism)로 쓰기도 한다.

실용주의는 미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통상규범으로 형식, 명분, 외관보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 그리고 내실을 중시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체로 명분과 형식, 외관과 체면에 치우치는 동양적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서구 특유의 통념이자 문화차이라 하겠다. 용어상, 행동(deeds)이나 사건(facts, acts), 즉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를 차용한 실용주의는 제반사고와 행위에 있어 유용성, 효율성, 실제성이 필요충분조건임을 전제로 한다. 실용주의는 추상적 원리에 저항하고 절대적 권위를 거부하는 총체적인 계몽운동을 선도하는 만치, 종교 역시 당해 범주에 포함된다.

서구불자들이 인도, 중국, 티베트, 일본 등 동양의 불교 영향권에서 받아들인 불법을 수행해온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양 불교국가들의 고유한 전승방식으로 서구사회에 제시된 불교철학과 불법의 일부는 자못 생소하고 난해하여 적응하기 퍽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바꿔 말해서, 동양의 전법사들이 지닌 서구현지사정에 대한 기본지식과 언어소통 등 사전준비가 몹시 부족할뿐더러, 유일신의 종교관 및 문화차이 등에 관한 대응방안도 초보수준을 면치 못한다. 그런 결과,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서구사회의 사부대중이 스스로 낯선 불교에 다가와 그들의 믿음과 삶을 불법에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딱한 모양새를 노출하고 만다. 전법의 자세가 이처럼 천진하거나 미숙하다보니,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홍법은 고사하고 불교의 참된 교의마저 오해 또는 왜곡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마침내 미국의 불자들이 직접 나섰다.

2006년 새 불교승가(New Buddhist Sangha), 즉 일종의 불교사회공동체가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것이다. 처음엔 '미국선불교종단'이란 이름의 작은 동아리로 시작한 이 단체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불교이념을 명시한 명칭, 즉 '실용불교종단(Order of Pragmatic Buddhism)으로 개칭하고 저변을 넓혀간다. 이 종단을 이끄는 짐 유벵크스도반 등은 실용주의철학과 중국의 선, 그리고 선불교를 상호 보완하여 미국 특유의 교의를 창출했다.

실용불교는 2500여 년 전 싯다르타가 자신의 가르침을 당대의 제반 현실상황에 적용하고자 진력했음에 주목하고, 그가 펼친 참 진리의 동질성을 현대 서구사회에도 조화롭게 접목시키자는 시공을 초월한 불교혁신운동 중 하나다. 실용불교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동감이 넘친 서구불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를 지켜보며, 서구불자들이 다르마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오히려 동양불자들을 이끌어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출처: TPB, IEP, 편역: 성휴 스님

달라이 라마 "무슬림 신앙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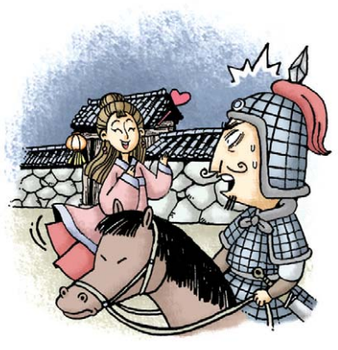
6월 1일 달라이 라마는 최근 인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테러행위로 인해 무슬림사회를 테러집단으로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테러에 관한 국제 회합'의 기조연설을 통해 악의적인 극소수의 견해와 행동 때문에 이슬람 전체를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초로 현지의 자마 모스크를 방문한 그는 "나는 불제자로서 이슬람 교리와 무슬림 신앙을 지지한다"고 무슬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근년 들어 인도에서 모스크와 열차 등에 대한 다분히 종교적 색채의 위해와 공격이 격화되는바, 이슬람과 힌두교 중 어느 측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출처: ANI

But you ruined my honor!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Long time ago, a famous general was riding his horse way back home. His loyal horse was much like his old confidant and comrade in arms. While the general was dozing, the faithful horse routinely took him and stopped at the door of a fancy brothel he had frequented. Overjoyed to have him back, his steady whore burst into laughter which awoke him. And he suddenly jumped out of the saddle shouting at his horse, "I've decided not to come here again, but you ruined my honor!" And in a flash, he draw his sword and cut off the neck of his horse. An old monk chuckled at the sad farce, "Such an honorable legend of buck-passing!"

먼 옛날 어느 유명한 장수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의 충성스런 말은 그의 오랜 심복이자 전우다. 꾸벅꾸벅 조는 그를 태운 말은 으레 그랬듯 그가 자주 가던 고급 유곽 앞에서 멈춘다. 다시 찾아온 그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의 단골 창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선잠에서 깨어난다. 곧장 안장에서 뛰어내린 그는 말에게 냅다 악을 쓴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기로 작심했거늘 네가 감히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그는 순식간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내리친다. 그 슬픈 코미디를 들은 어느 스님이 껄껄댔다. "진짜 명예로운 책임전가의 전설이로세."

번안 :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월드스타 ★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❹

'위험한 자유' 꿈꾸던 청년



유복하고 순탄한 유년기를 보내던 올리버 스톤에게 느닷없이 절망의 파도가 거푸 치고 든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의 사업마저 파산 지경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 교육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는 지금껏 누려왔던 미국 상류층의 모든 특권이 사라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실감한다.

그가 고교 1학년 즈음인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는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등의 내란이 격화되어 외인부대와 용병사업이 번창한다. 엄청난 혼돈과 자포자기의 늪을 헤매던 그는 자신을 운명이란 저울에 얹어두고 '죽나 사나' 지켜보고자 외인부대에 들어가려한다. 그런데 그가 교고를 마치던 이듬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확전을 결정하자 그는 외인부대보다는 미군의 파월전투병과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그에게 예일대학의 인문학부에서 입학허가 통지서가 날아든다. 그 모든 혼란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작 십대후반 청소년의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행복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라고 한다.

집안 몰락 후 혼돈과 자포자기에 빠져

상아탑 박차고 나와 소설 창작에 매진

게다가 고통이란 고독과 함께 다가올 때 처절함의 극에 이른다 하는 즉, 아마 그때 그에게는 눈물마저 사치였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어찌어찌 학비를 챙겨서 겨우 들어간 예일대학을 기껏 한 해 동안 오가다 결국 뛰쳐나온다. 그리고 방황한다. 아니면 불가에서 말하는 수운행각에 나선 건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그는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 <로드 짐(Lord Jim)>에 빠져들며 주인공과 더불어 정신분열증이라 할 정도의 심리적 공황과 자기비애 속에 허우적거린다. 그런가 하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 나타난 무모함과 안하무인의 야성을 보며 '위험한 자유인'이 되길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조지 해리슨의 나른하고 몽환적인 인도 풍의 음악에 심취하며 나름대로의 니르바나를 그린다. 분노든 좌절이든 우울이든 그 뿌리는 대체로 같다. 즉, 차이 또는 간격 때문이다.

꿈과 현실의 차이, 욕망과 성취의 간격, 미망과 정각(正覺)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멀어질수록 백팔번뇌의 새까만 콜타르는 더욱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그러던 즈음 그는 베트남으로 떠난다. 현재 호치민 시인 사이공의 번화가이자 차이나타운인 촐론에 화교 계 자유태평양학원 강사로 일할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18세이던 그가 사이공에 도착한 1965년 6월부터 미국의 베트남 무력개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보병부대와 해병대가 선발진입을 한다. 훗날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회고한 바에 의하면 당시 미군들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총기를 난사하며 돌아다니기 일쑤여서 광란의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그건 군기(軍紀)실종이나 난동이기보다는 졸지에 베트남전쟁이란 생지옥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이 미처 감추지 못한 공포감과 집단히스테리에 가깝다 하겠다.

그는 그 난리 북새통에서 베트남과 화교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등을 가르치며 따분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것도 고작 반년 남짓, 그는 다시 미국의 상선 함대에 갑판 청소원으로 일자리를 옮겨 뱃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그 후 그는 잠시 오리건에 머물다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로 떠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신이 겪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꿈꾸는 아가의 밤(A child's Night Dream)>이란 제목으로 장장 1400쪽에 달하는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 무렵 그는 아무래도 다시 대학생활이란 걸 좀 더 해보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일대학에 복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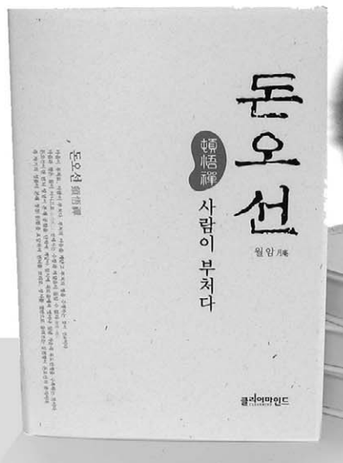
그런데 소설을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다보니 학점을 채우기조차 늘 빠듯하다. 그러자 그는 아예 이번 참에 영원히 상아탑을 박차고 나와 필사적으로 소설 집필에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완성을 본다. 그러나 어느 출판사 하나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다. 극도로 좌절한 그는 소설 원고를 이스트 강물에 모두 던져버린다. 체념의 끝은 달관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킬킬 웃고 만다. "푸하, 되는 일이라곤 없군(Nothing doing)!"

성휴 스님

화제의 신간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 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공)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한산 월암 閑山 月庵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道文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학을 연구하고 여러 선종 조정祖庭을 참배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였다.
지금은 벽송선원에서 선교겸수禪敎兼修, 선농일치禪農一致, 불이선不二禪 운동 등 한국 간화선풍 진작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회禪會를 열고 『간화정로看話正路』를 저술하였다."

글_ 월암月庵 | 499면 | 20,000원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제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 에게는 가장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선사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좌)

돈오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깊이 다룬 문헌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월암선사가 돈오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어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세우고, 나아가 선문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선자(禪者)에게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지금까지 '돈오'(즉각 깨달음) 이후 '닦음'의 문제로 성철 선사–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겨레신문

"그간의 돈–점 논쟁이 경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곁가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글 월암月庵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일주문



용성 스님 탄신기념 봉찬법회 봉행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6월 11일 죽림정사에서 용성 스님 탄신을 기념한 제145회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6·25참전용사영가지장기도5재 법문
서울 현성정사 회주 현성 스님은 6월 11일 오전 10시 부산 내원정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영가를 위한 지장기도 5재 법문을 했다.



2군 사령부 대법당 점안법회 법문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 스님은 6월 15일 대구시 수성구 2군 사령부 대법당 부처님 점안법회에 참석해 법문했다.



무애춤 현대적 해석 주제 특강
원효무애춤명상보존회장 도각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0시 한국예술종합학교 226호실에서 '원효사상과 원효 무애춤의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특강한다.(02)2265-8858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 강의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6월 18일~8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김재일 법사의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02)732-1206



재가연대 창립9주년 후원의 밤 열어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는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가연대 창립9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02)2278-3417

"상 받으려니 부끄러울 따름"

오현 스님 공초문학상 수상

나아갈 길이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 온 곳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시 '아지랑이'로 제16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오현 스님.

시인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이 지난 해 상재한 시집 <아득한 성자>에 실린 위의 시 '아지랑이'로 제16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사(사장 노진환)와 공초 오상순선생 숭모회(회장 이근배)가 주관하는 공초문학상 시상식은 6월 1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오현 스님은 "말과 글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중이 시를 쓰고 상을 받는 일은 아무래도 우스운 일이다. 옛날에 절에서 중노릇 못하는 사람을 쫓아 낼 때는 몹시 망신을 주어 내쳤다는데, 나도 상을 받으려니 절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부끄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러나 김남조 선생이 조금 전에 상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해 줘서 조금은 기쁘기도 하다"고 겸양했다.

오현 스님은 "내가 오래전에 공초 선생님을 조계사에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께서는 누구에게나 만나면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그런데 나를 보면 늘 '중 옷을 입고 뭐가 그리 바쁘냐'며 일없는 가운데 귀한 참사람(無事眞人)이 되라고 권하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공초문학상 심사 위원장 오세영 시인(서울대 명예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오현 스님에게 이 상을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본상의 정신적 지주라 할 공초 선생의 일생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불가의 가르침에 바탕한 스님의 그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바 있어 스님의 수상을 배제하고서는 이 상의 존재 의미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영 시인은 또 "작품의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오현 스님의 문학이 현대시단에 끼친 공적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로 시조시형에 선시를 도입한 선구자가 스님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는 김남조 김종길 두 원로시인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근배 시인도 공초 선생을 추모하며 오현 스님의 수상이 공초 선생의 구도자적 삶과 깊은 의미의 연관을 갖는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정진규 이승훈 구중서 신달자 조정래 송준영 홍성란 공광규 이숭원 이지엽 홍사성 서정춘 이가림 성찬경 김초혜 이상국 등 많은 문인과 동선 삼조 홍진 정념 혜관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부산 동명불원 고승초청법회 봉행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6월 4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초청해 '고승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3000여명이 참례했다. **조동섭 기자**

광주 무각사 지관 스님 초청 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7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했다. 지관 스님은 "행복은 중심을 바로 세워 생활궤도를 바꿀 때 오는 것이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스국제불교도협회 발족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우학)는 6월 8일 대웅전 연화법당에서 한국스리랑카국제불교도협회를 결성, 발족식을 가졌다. **김성우 기자**

원융종 지혜원 준공법회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6월 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칠보암(주지 진월) 도량 내에 부지 4000여평 규모의 지혜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원융종 중앙종의회의장과 교육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대구 덕안사 삼존불 이운 중창불사봉행


대구 덕안사(주지 종관)는 6월 8일 삼존불 이운법회 및 중창불사를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종관 스님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 늘 깨어있는 당당하고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이상 수상자 선정

각현 스님 · 황순일 교수




제23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황순일 교수가 선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1990년 연꽃마을을 설립해 노인복지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황순일 교수는 초기부파불교를 전공하고 있는 소장 불교학자로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부분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금은 각 분야별 1000만원. (02)762-5624 **김강진 기자**

"공교육 정상화 통해 부처님 법 실천할 터"

서울시 교육감 출마한 박장옥 前 동대부고 교장



"서울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 법의 실천입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종립학교 교장이 사상 처음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불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교육 개혁 선구자로 불리는 박장옥 前 동국대사범대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주인공. 그는 교육감 출마를 위해 30여년 몸담은 종립학교 교장직을 내놓고 5월 29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후보는 동대부중(舊 명성여중)을 시작으로 여중에서 7년, 동대부여고에서 15년, 동대부중에서 3년, 동대부고에서 3년 모두 28년을 교단을 지키며 종립학교 위상을 높여왔다. 교장이 돼서도 직접 수업에 나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충수업과 자율수업의 파격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성적을 괄목하게 성장시켜 온 그다.

박 후보가 동대부중 교장 재임 때다. 오후 3시 하교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보충수업 금지 지시 공문이 왔지만, 박 후보는 자율학습을 고수했다. 자율학습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학생 보호를 위해 그가 내린 결단이었다.

박 후보는 교장 신분일 때도 수업에 나서 화제였다. 동국대 수학과 출신으로 수학 교과 교사였던 그는 방학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생을 직접 가르쳤다. 매 수업이 끝나고 찾아오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는 서류결재를 했다.

교장 선생님이 왜 직접 학생을 가르쳤을까? 박 후보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웃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항상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육자의 의무와 직접 가르쳐봐야 학생 수준을 파악해 교사들에게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었다.

박 후보는 교장 재직 시절 이미 사교육비 70% 절감 가능성을 증명했다. 실력 있는 강사를 직접 초빙해 평균 24만원이던 학원비를 과목당 1만 8000원의 보충수업으로 해결했다.

박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사교육비 70% 절감 ▲학생안전 보장 ▲특수교육 활성화 ▲학교문화 개선 등 공약들은 이미 그가 교장직에 있으면서 실천했던 것들이다.

"학교가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 사교육은 필요없다"는 박장옥 후보. 그가 동대부고 등 종립학교에서 증명한 교육비전을 서울시 교육을 통해 널리 펴겠다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장옥 후보의 하화중생(下化衆生)한 행보에 7월 30일 서울시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생의 희망 찾아 한국 땅으로…"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인 환자 2명 초청 무료 의료봉사

"나는 캄보디아인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목옆에 혹이 난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 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혹 부분이 아파왔어요. 때마침 마을 인근 센터에 한국에서 온 의료자원봉사자들이 있다기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통증일까 했는데 종양이랍니다. 사실 종양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목이 너무 아파요.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데 고향 마을에서 치료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치료비도 없거니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센터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가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낯선 나라, 한국으로. 가족들을 위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저는 왔습니다. 두렵지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캄보디아 환자 오욱 힘씨)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환자 오욱 힘(왼쪽 사진 가운데)씨와 키아 카브(왼쪽 사진 오른쪽). 이들은 로터스월드 초청으로,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실승회 스님들과 환자들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에서 캄보디아인 2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경부(목) 종양을 앓고 있는 오욱 힘(Ouk Him · 31)씨와 탈장 증세를 보이고 있는 키아 카브(Khea Kav · 14) 학생이 그들이다. 이들은 6월 9일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해, 11일 현재 경희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로터스월드는 그 동안 캄보디아 시엠립에 BWC아동센터를 설립해 현지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18~21일 경희의료원 불자회 의료봉사단이 이곳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중 다소 상태가 심각한 2명의 환자, 오욱 힘씨와 키아 카브 학생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한국에서는 간단한 수술로도 나을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 없이 방치돼 오고 있었던 것.

캄보디아는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인데 의료비는 턱없이 비싸 일부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희의료원불자회는 한국에 돌아온 직후인 4월 말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환자 2명과 보호자 1명분의 한국 방문 경비 일체와 수술비 마련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드디어 이들 환자들의 한국 방문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입국하자마자 우선 서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실로 향했다. BWC아동센터가 없었다면 이런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도착한 이들은 낯선 외국 환경에 놀랐다. 높은 빌딩도, 복잡한 도시의 모습도 이들에게는 아직 낯선 이국의 풍경일 뿐이었다.

특히 오욱 힘씨는 아직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목 한쪽 부분이 부어 고통이 심해 보이는 오욱 힘씨는 1남 1녀를 둔 어머니다. 가족들을 놔두고, 생업도 잠시 놓고 온 오욱 힘씨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시급한 듯 했다.

키아 카브 소년은 만14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띄어보였다. 겉보기에는 크게 아픈 곳이 없어 보이는 키아의 경우, 장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좌측 서혜부에 종물이 있어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성기능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면 한창 성장기일 때인데, 키아의 모습은 9~10살이나 되어 보일까 싶었다. 키아의 나이를 듣고 놀라워하자 로터스월드 민정희 국제교류팀장이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성장이 다소 느리다"면서 "키아의 경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리나라 아이들 11세용인데도 옷이 클 지경"이라 넌지시 전해준다.

키아는 모습만 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재 학업도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다. 글을 읽고 쓰게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키아는 나중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한다.

6월 10일 이들 캄보디아 환자들과 만난 실승회 조직 · 교육위원장 부경 스님과 사무처장 효진 스님은 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들이 병이 나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잘 보살피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캄보디아 BWC아동센터 인근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은=키아는 6월 11일 현재 수술 날짜를 잡아 빠른 시일 내에 종양을 제거할 예정이다. 오욱 힘씨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키아보다 더 까다로운 조직정밀검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

또 하나! 이들의 수술비와 비행기 삯, 체류비 등 경비 모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또한 로터스월드는 7월에 영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도 함께 구하고 있다. (02)725-4277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생태, 불교복지의 또 다른 길"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상반기 학술포럼 개최

불교사회복지와 생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주제가 만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생태 불교복지를 만나다'는 이름으로 2008년 상반기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복지가 양적 팽창에 머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 새로운 생명력을 갖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생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불교사회복지는 어떻게 수용,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기도 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백남석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다양한 생태담론 제시와 김정희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불교복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생명위기 시대의 불교복지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명상' 등의 수행방법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사찰 대안교육 역시 불교사회복지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장희정 단국대 교수의 '사찰 대안교육을 품다'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봉사는 마음 다스리는 藥"

서울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에 금요일 아침마다 달려오는 이 사람, 심상치 않다. 멋드러진 백발머리에 걸쭉한 목소리, 호탕한 웃음까지. 주로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이 시설에 이 멋진 남자 봉사자가 찾아오는 날이면 어떠할지 상상이 갈만 하다. 싹싹한 말투와 성심껏 일하는 마음까지 갖춘 이 사람, 이제 효림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 '짱'이다. 이 사람은 김종열(57·사진)씨다.

효림원 봉사자 김종열 씨



복지시설 봉사자들을 살펴보면 남자 봉사자가 참 귀하다. 평일 봉사를 할 수 있는 남자 봉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도 생업을 갖고 있다. 서울 패션의 중심지 홍대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는, 새벽 4~5시나 되어야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잠이 절박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부터 금요일마다 효림원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한다.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오전 효림원에 오질 않으면 마치 이를 닦지 않은 것처럼 찝찝하고 꺼림직합니다. 이를 안 닦고도 살 수는 있지만 홀가분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기분이에요."

김씨가 효림원에서 하는 일은 주로 목욕봉사다. 남자가 할머니들 목욕봉사를? 자칫 오해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씻겨드릴 수 있도록 욕실까지 데려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자 봉사자들이 힘에 부쳐하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이다.

생업 바쁜 와중에도 매주 목욕봉사
"봉사는 이를 닦듯이 꼭 해야할 일"

이렇게 봉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맨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김씨가 처음 봉사를 왔을 때, 손발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는 80대 할머니가 있었다. 목욕을 마친 할머니를 안아서 침상 위에 뉘이면서 김씨가 "시원하시죠?"하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고마워요"하고 대답하더란다. 그는 그 순간 덕분에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되려 감사한 마음이다.

목욕 봉사뿐만 아니라 효림원에서 일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그는 오전 시간을 십분 활용해 달려온다. 하지만 이런 김씨도 잠깐 봉사활동을 중단 한 적이 있었다.

2년 전쯤이었던가,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왔다. 하던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고단하던 그 때를 다시 넘긴 것은 한 봉사 도반의 연락을 받고 부터였단다.

"현재 함께 봉사하는 어떤 보살이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병에 걸렸더랬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은거에요.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살게 된 삶을 회향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냐고요. 그 때 효림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나오게 됐고요."

다시 돌아온 그는 성실한 봉사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효림원에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들이 보이는 웃음과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모습 하나면 그는 만족한다고.

"자원봉사는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약'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불자분들에게도 봉사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불자된 마음으로 타인에게 웃으며 다가설 수 있는 자세, 그것을 저는 불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불정존승대다라니의 부사의한 신통법력의 비밀

중국 오대산에서 1330년 전에 문수대성존께서 불타파리존자로 하여금 세상에 널리 유통시킨 부사의한 대신통법력을 지닌 비밀장다라니를 현세의 죄업중생을 위하여 낱낱이 밝게 드러내다. 일심정력 기도하시여 체험해 보십시요.



■ 불정존승대다라니는 모든 악도를 깨끗하게 하며, 생사와 번뇌를 제거하며 모든 지옥의 고통과 염라왕 세계의 고통과 축생보의 고통을 면하게 하며 지옥을 깨뜨려 선도로 나가게 하느니라.
■ 이 다라니를 어떤 사람이 들어 한번이라도 귓전을 스치기만 하면 전생에 지은 일체 지옥의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청정한 몸을 얻게 되느니라.
■ 어떤 사람이 명을 마치려 할때 잠시라도 이 다라니를 염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신구의(身口意)가 청정해져 몸에는 고통이 없고 그 복리를 따라 가는 곳마다 안온할 것이다.
■ 잠시라도 이 다라니를 송주하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지옥과 축생과 염라왕의 세계와 아귀의 고통이 파괴되고 소멸되어 남은 고통이 없느니라.
■ 이 다라니를 사경하며, 널리 법보시하거나, 받아지녀 독송하거나, 혹은 이다라니를 듣고 타인을 위해 법공양하는 이는 모든 악도가 모두 청정해지며 지옥고가 모두 소멸하느니라.
■ 목욕재계를 갖고 이 다라니를 송주하되 일심정력으로 1000편을 채우면 단명한 이는 장수하고, 병고(病苦)를 여의게 될 것이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하느니라.
■ 만약 몹쓸병을 얻은 사람이 이 다라니를 들으면 곧 병이 소멸될 것이며 정토에 왕생하리라.
■ 날마다 재계를 갖고 이 다라니를 21편을 일심정력 송주하면 일체 세간의 광대한 공양을 녹이게 되고 몸을 버린 뒤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 본문중에서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24-0163-316 (예금주 : 김진영)

4·6배판/148쪽/불타파리봉조역/정가 9,000원/화림원출판/ • 구입문의 : (02) 2272-4398(주·야)

“배설과 할보를 아시나요?”

문화재청,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출간

일본강점기 약탈됐던 ‘경천사 10층 석탑’, 일본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 한국전쟁으로 소실될 뻔 했던 상원사 · 화엄사 · 해인사, 도난됐던 ‘건봉사 진신치아사리’의 공통점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 문화재로 지켜졌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6월 5일 발간한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에는 ‘경천사 10층 석탑’ 등 문화재를 지킨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복도에 자리한 국보 제48호 경천사 10층 석탑(이하 경천사 탑)이 해체된 채 포장 속에서 11년간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1907년 경천사 탑의 아름다움에 반했던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야키는 경천사 탑을 일본에 가져가려고 고종 황제의 명을 사칭했다. 개풍군민 등이 이를 반대하자 200여명의 무장병력까지 동원해 총 · 칼로 경천사 탑을 강탈했다.

경천사 탑 강탈 사실에 조정도 숨죽인 때 영국인 어네스트 베셀과 미국인 호머 헐버트는 이 사실을 각각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리뷰>에 보도했다. 베셀과 헐버트의 보도에 경천사 탑의 강탈을 부정하던 일본 정부는 강탈 사실을 시인했다. 국내외 여론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결국 다나카는 경천사 탑을 반환해야 했다.

경천사 탑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훼손이 심했다. 광복 때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해체된 채 방치됐던 탑은 1959년 경복궁 안에 세워졌다. 1962년 12월 국보 제48호로 지정됐지만, 수차례의 보수에도 경천사 탑 보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다시 해체 · 보존 · 복원 작업이 끝나고 수백점으로 조각났던 경천사 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뚝 섰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경천사 탑의 현재는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과학의 쾌거라 말한다. 하지만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의 문화재강탈을 목숨 걸고 막았던 개풍군민과 진상을 세상에 알렸던 배설(베셀)과 할보(헐버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책은 러일전쟁 때 일본이 가져가 야스쿠니 신사 구석에 방치했던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은 초산 스님 이야기도 담고 있다. ‘북관대첩비’는 1709년 함북 길주에 임진왜란 전승을 기록해 세운 것으로 2005년 반환받아 2006년 북한 측에 전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던 군인들에게 “법당과 함께 나도 태워달라”고 해 상원사를 지킨 한암 스님, 1951년 8월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합천 해인사를 지켜낸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이야기, 빨치산 토벌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문짝을 태우는 것으로 대신했던 故 차일혁 총경 이야기, 도난된 건봉사 진신치아사리가 돌아온 이야기 등도 실렸다.

6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서 문화재청 이건무 청장은 “문화재 소실은 역사와 문화를 잃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했던 분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복도에 위치한 경천사 10층 석탑.




6월 5일 출간 기념회에서 문화재청 이건무 청장이 책 이야기 주인공인 초산 스님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위). 어네스트 베셀.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차일혁 총경, 호머 헐버트(좌부터).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마로 소실된 지금, 지리산 화엄사를 지킨 故 차일혁 총경의 말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도 부족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석가탑 ‘묵서지편’ 연구자 모인다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세미나

‘묵서지편’ 논쟁 3라운드가 시작됐다.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묵서지편’은 2007년 10월 노명호 · 이승재 교수(서울대)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에서 1차 판독 내용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 1월 한국목간학회(회장 주보돈) 정기발표회에서 “판독순서가 잘못됐다”며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묵서지편’은 학계의 쟁점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불국사(주지 성타)는 2008년 6월 20일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어 ‘묵서지편’ 논쟁에 다시 불을 당길 전망이다.

학술세미나는 박지선 교수(용인대),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승재 교수(서울대), 최연식 교수(목포대), 주경미 교수(부경대),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벌인다. 조동섭 기자

‘종교와 계율’ 학술적 조명

6월 21일, 동국대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6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종교와 계율’을 주제로 제81회 월례학술회의를 연다.

1부 백도수 연구원(금강대 HK연구원)이 ‘구전전승에 의한 원시불교 교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서명원 교수(서강대 종교학과)가 ‘불교와 기독교의 수행과 계율’을 발표한다. 2부는 자유주제로 희철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문강요집>에 나타난 임제 삼구 연구’를, 정도 스님(동국대 강사)이 ‘경봉 선사의 선사상 연구’를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일본 미술품에서 한국의 모습 찾다

11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미술의 복고풍’ 展

한국이 고구려를 그리워한다면 일본은 아스카를 그리워한다. 20세기초 일본에는 아스카 시대(538~710) 중심의 고대문화 부흥 움직임이 일었다. 아스카 시대는 백제 성왕의 화신 혹은 미륵의 화신이라 칭해졌던 쇼오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한 시대다. 한반도 불교 문화를 수용했던 아스카시대 미술품에서는 한국 문화와 닮은 꼴이 쉽게 찾아진다.

이런 가운데 국립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16세기 이후 일본 미술품 3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아시아의 전통을 동경하며-일본미술의 복고풍 展’을 마련했다.

전시실에는 아스카시대 소재의 그림, 조각 등 근대 일본미술품이 전시됐다.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를 연상시키는 후가이 에쿤의 ‘달마도’와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과 꼭 닮은 고토 세이이치의 조각 ‘훈염’ 등 전시품 등을 본 관람객들은 모두 “한국 문화재와 판박이”라 입을 모은다.

한편 6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는 ‘다치바나노 오이라쓰메가 무궁화꽃을 들다’를 주제로, 7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에도시대 문인화와 한시’를 주제로 한 ‘일본 미술의 복고풍’에 관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마련됐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일본실서 11월 2일까지 열린다. (02)2077-9556

조동섭 기자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과 꼭 닮은 고토 세이이치의 ‘훈염’.

황룡사지 진신사리 친견 못한 분?

불교중앙박물관 6월 29일까지 무료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개관 1주년 특별전 ‘법-소리 없는 가르침’의 관람객 1만명 돌파를 기념해 6월 3일부터 29일까지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불교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전시 유물 가운데 643년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와 황룡사 구층목탑에 봉안했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한 관람객이 많았다. 법보전 막이 내리는 6월 29일까지 황룡사지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보다 많은 불자들이 박물관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4월 28일 시작한 불교중앙박물관 ‘법보전’에는 국보 9점, 보물 25점 등 총 162건 197점의 성보가 전시됐다.

한편 황룡사 출토 진신사리는 법보전이 끝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반환돼 한동안 친견이 어렵다. (02)2011-1960

조동섭 기자

운문승가대 일본 하나조대와 학술교류 맺어

학사학위없어도 하나조노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는 6월 5일 일본 임제종 종립 하나조노대(花園大, 총장 아베코산)와 학술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운문사 승가대와 하나조노대는 학술교류 협약을 통해 학술연구 및 교수 · 학생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운문사 승가대는 “이번 협약으로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은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본 하나조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는 지난 1월 중국 칭화대(淸華大)와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1차년도(2008년) 홍천 연화사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대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 경주 불국사, 설악산 계곡 만해마을을 순례하였고, 올해는 동양최대의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홍천 연화사에서 개최합니다.

■일 시 : 2008년 7월 27일 ~ 7월 29일 (2박 3일)
■장 소 : 홍천 연화사 ■내 용 : 염불정진외 본행사
■대 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문 의 : 02)732-1215~17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동참비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 분 (10만원)
개인직접 연화사로 오실 분 (7만원)
차량과 숙식관계로 선착순 접수마감함.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무량한 사랑깃든 부석사

의상과 선묘가 걸어 나올 듯

선묘(善妙)의 마음이 깃든 도량,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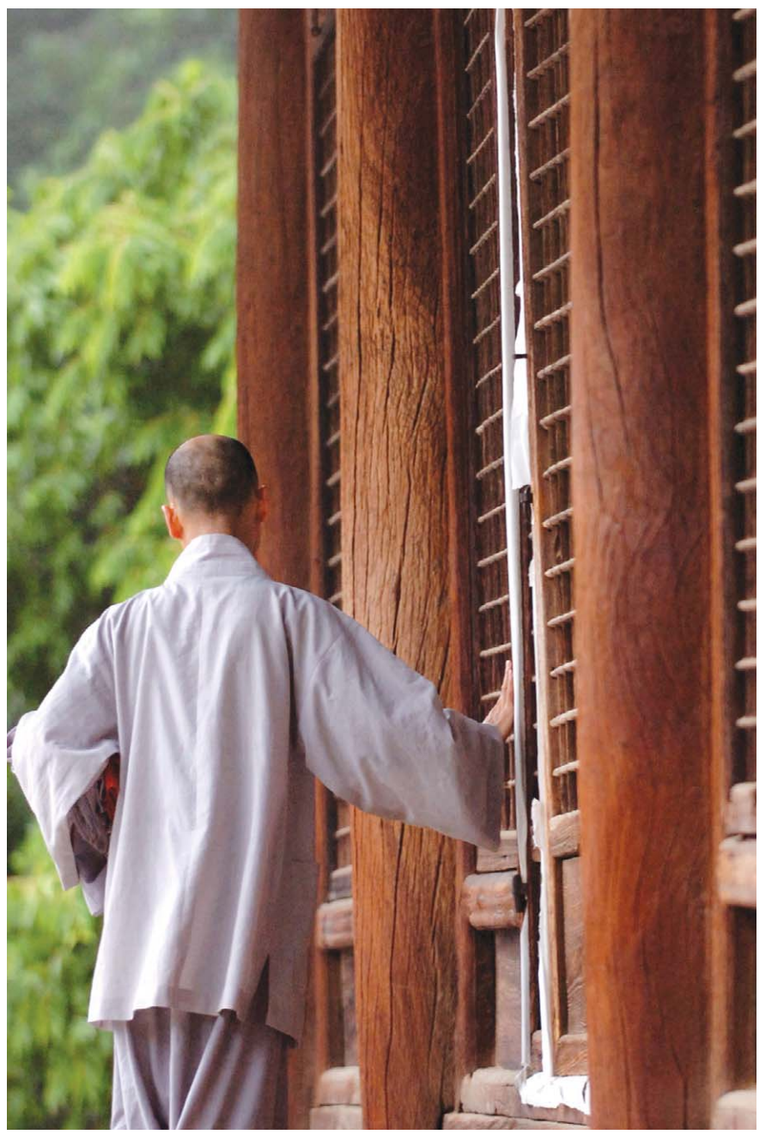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은 마당을 텅 비운 채
초여름 안개비에 젖고 있다.
그 많던 소백산 봉우리도 오늘은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무량수전만이 유일한 세상처럼 서있다.
시간의 자리도, 오고 감의 길목도 없을 것만 같은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쌓이는 안개비를 맞는다.

법당에선 스님과 불자들이 사시예불을 올리고 있다.
법당 뒤편에는 선묘의 바위 '부석(浮石)'이 보인다.
의상(義湘, 625~702) 스님을 연모했던 선묘 낭자는 용으로 변신하여 스님을 따라왔고,
스님의 불사(佛事)를 방해하는 산적들을 이 바위를 들어 올려 물리쳤다고 한다.
그 후 선묘신룡은 부석사를 지키기 위해 석룡(石龍)으로 변하여 무량수전 뜰아래 묻혔다고 전해온다.

안개 숲 어딘가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마당 모퉁이에는 파란 붓꽃이 빗방울을 이고 있다.
삼층석탑을 돌아 오솔길을 걷는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숲과 숲을 잇는 오솔길에는 오래된 발자국들이 보인다.

예불을 마친 스님이 법당을 나선다.
이제 법당은 텅 비고 그 텅빈 공간은 일체 중생을 담는 무량수불의 품이다.
뻐꾸기가 운다.
아득한 시절 선묘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한 마음처럼 안타까운 것이 또 있을까.
시간도 물리고 길목도 닫은 부석사.
숲속 오솔길에는 의상 스님의 발자국이 빗방울에 드러나고
무량수전 뜰아래는 물안개가 선묘의 마음처럼 피어오른다.

영주 부석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kangkang@buddhapia.com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 한방 (韓方)
코막힘, 비염, 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 053)552-8800

고행의 끝, 살아있는 부처를 맞다

〈1면에서 계속〉

10보1배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탐(탐욕), 진(성냄), 치(어리석음)를 걷어내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련법이다. 절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몸동작으로 가장 경건한 예법이다. 진정한 예법은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어야 하는데 절은 교만과 거만을 떨쳐내는 행동예법이다. 그래서 10보1배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온몸으로 참회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수행 정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도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출발할 때 준비한 새 신발이 이틀새 닳았다. 면장갑도 땅에 닿는 부분은 실밥이 풀리는 강행군으로 무릎과 손목이 상할까 염려됐다. 봉정암에 가까워질수록 순례단의 육체적 고통도 커져 갔다.

11시 10분경에 봉정암을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8부 능선 깔딱고개에 이르렀다. 체력은 완전히 바닥나고 일어서면 어지러워 곧 쓰러질 것 같다. 한 순간 정신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 험한 바위를 기어가며 10보1배 정진을 이어갔다. 이윽고 봉정암이 눈앞에 나타났다.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목탁소리도 어렴풋이 들린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눈물을 참으며 "감사합니다"란 짧은 말로 마지막 절을 하는데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봉정암에 오른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0악을 참회하는 것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일념으로 10보1배를 시작한 순례단은 9시간 만에 봉정암에 도착했다.

먼저 봉정암에 오른 관광객들로부터 "대단합니다" "성불하세요"라는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사리탑에 올랐다. 불자라면 살아생전 꼭 한번은 올라야한다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이곳 봉정암 사리탑 앞에 서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하늘로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졌다.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해발 1224m, 9km의 험준한 설악산. 걸어서도 가기 힘든 그 길을 10보1배로 고행정진했다는 성취감에 신심이 커졌다.

10년을 하루같이 108배 수행을 해온 권춘선(62 · 안락동)씨는 환희에 눈물을 쏟아냈다. 감기몸살로 아픈 몸을 이끌고 10보1배를 마친 김수경(63 · 연지동)씨 역시 "스님께서 다음에 건강할 때 하라고 말리셨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예를 올리고서야 산 아래를 바라봤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은 안개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영산의 모습이었다. 많은 참배객과 등산객으로 늘 붐비는 봉정암에는 맑은 공기와 부처님의 향기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 좁은 법당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불자들도 많았다. 순례단의 거의 대부분은 사리탑에 올라 철야기도를 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열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며 봉정암을 오른 순례단.

6월 12일 마지막 날 새벽. 봉정암은 고요했다. 천년을 넘게 서있는 설악산이 언제나처럼 조용히 아침을 부르고 있었다. 보광 스님과 신도들은 잠을 설쳤다. 2박3일간의 10보1배 대장정이 끝나는 날.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아침 예불을 올린 뒤 보광 스님이 먼저 나서고 그 뒤를 신도들이 말없이 뒤따랐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백담사 주차장에서 이틀을 기다려준 버스기사가 순례단을 반갑게 맞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염려해 에어컨을 미리 틀어둬 사흘간 땀과 눈물 베인 온몸에 한기가 돌 정도였다.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 편하고자 하는 본능과의 싸움, 포기하려는 의지와의 싸움, 42명의 순례단은 치열한 고행에서 마지막 승자가 됐다. 순례단의 얼굴에 빙그레 웃음이 떠오른다. 떠나올 때 뵈었던 불광사 부처님처럼.

박지원 기자

어르신 공경의 도량 '환희정' 개원

부산 사하구에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환희정'이 6월 12일 문을 열었다.

'환희정'은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 지현)이 총 사업비 9억여원을 투입해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 내에 건립했다.

33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한 '환희정'은 환희불교복지대학과 환희요양보호사교육기관, 입소보호사업, 방문요양서비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이다.

1층은 노인 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희불교복지대학 교육 강당, 2층은 사무실, 3층과 4층은 노인입소보호시설, 5층은 교육자료실 및 휴게실로 꾸며졌다.

특히 3 · 4층의 입소보호시설은 총 29명 정원으로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돕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목욕,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9억여원을 투입해 부산 관음사 내에 노인을 위한 다목적 시설 '환희정'을 개원했다. 사진은 6월 12일 개원식 모습.

이날 개관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청암승가대학 지형 스님, 청암사 상덕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훈 스님 및 사하구청장,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기쁜마을 대표 지현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돈 없고, 아프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법을 익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일이 바로 불법을 전하는 길"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송광사 영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환희정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개원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을 기념해 22일까지 열흘간 환희정 1층 강당에서 이사장 지현 스님의 소장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복지법인 설립 후 10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전시회로 선서화와 도자기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판매 수익금은 복지 기금으로 쓰여진다.

박지원 기자

인터뷰

10보1배는 '신성한 기도' 정치적 이용 말아야

11번째 봉정암 10보1배 순례 마친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



"10보1배는 신성한 기도며 만행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순례입니다. 정치 선전용이나 데모의 시위로 변질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오르기도 힘든 설악산 봉정암을 10보1배로 벌써 11번째 오른 부산 백양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사진)을 만났다.

스님은 "절을 할 때는 발을 가지런하게, 몸은 바르게,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 손은 옷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을 차례로 땅에 댄다. 왼 팔꿈치, 오른 팔꿈치 순으로 땅에 대고 두 손바닥을 펴 이마를 거쳐 머리 위로 들고 이마를 땅에 대는 순서로 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라고 절의 의미를 말했다.

이어 "옛날 부처님을 뵙길 청할 때는 멀리서부터 3보1배를 했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에 갈 때도 일주문에서 한번, 사천왕문과 법당 밖에서도 각각 3배를 했다"며 "10보1배는 내가 만든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던 예법이 되살렸을 뿐"이라며 10보1배 순례의 뜻을 설명했다.

또 "이런 불가의 절이란 예법이 정치인들의 선전용 수단이나 데모 시위대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신성한 기도로서 절이 가진 본래의 의미로 되돌아가야할 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5대 적멸보궁 10보1배 및 탁발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대승불교조계종 용왕수륙천도대재 봉행

6월 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서

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홍)은 6월 8일 오전 11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용왕수륙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단오절을 맞이하여 봉행된 용왕수륙천도대재는 스님 및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국가경제 발전 및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위한 감사의 장이었다.

총무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어 임란 때 가장 격전지였던 이곳 부산 다대포에서 호국영령천도재를 봉행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부대중이 모두 건강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작년에는 200여명의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 구화산에서 합동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매년 천도재를 봉행하여 호국 영령 및 모든 조상들을 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밀양불교합창단 15주년 기념 합창발표회

밀양불교합창단(단장 김은희)은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창단 15주년을 맞아 기념발표회를 열었다.

6월 17일 저녁 7시30분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불교인과 시민,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공연에서 밀양불교합창단은 밀성정보고 곽호진 교사의 지휘로 '나무관세음보살' '청산에 올라' '내 마음의 부처' 등 다수의 곡을 발표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뽐내 갈채를 받았다. 밀양불교합창단은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산하 합창단으로 밀양 유일의 불교합창단이기도 하다.

한편 가수 조항조, 음성공양 심진스님 등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055)355-4518

박지원 기자

제3회 금강은빛문화축제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곽인철)은 개관 3주년을 맞아 금강은빛문화축제를 개최했다.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지난 1년간 복지관에서 배운 일본어 발표회를 비롯해 건강 댄스, 스포츠 댄스 등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한마당이 펼쳐졌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핸드마사지, 즉석 기념사진 촬영, 미술작품 전시회, 뽑기 과자 굽기 등이 이어졌다.

박지원 기자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 입니다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최면지도자 과정 (2개월) 매주 1회 총 8회
대 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7월 3일 (선착순 20명) 6월 수시접수함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측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기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무료 건강강좌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6월 10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고창병원 빈홍건 박사를 초청해 '협심증과 심장질환'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열었다.

작년 복지관 이용자를 상대로 실시한 욕구조사에서 '건강상식 부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1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한 건강강좌는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김경림 할머니(74 · 고창읍)는 "협심증에 대해 알았다. 내일 병원을 찾아 검사하겠다"고 말해 무료 건강강좌의 효과를 보여줬다.

무공 스님은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높은 호응과 참여율에 향후 지속적인 건강강좌를 개최하겠다. 지역민과 이용자들의 욕구를 계속 살펴 건강강좌 외의 문화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노인 복지 사각지대였던 고창군을 노인복지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황사 템플스테이 실무자 교육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6월 9~11일 해남 미황사에서 '2008년 템플스테이 신규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48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지스님과 실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교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소개와 행정업무, 모범 운영사찰과 실무자 사례발표 등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한 교육과 모범 운영사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 운영시스템을 템플스테이에 맞춰 진행해왔다. 미황사에서 많은 것을 습득해 가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2008년 처음 템플스테이 운영 신규사찰로 지정된 증심사를 대표해 실무자 교육에 참가한 조영훈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됐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미황사를 시작으로 차기 실무자 교육도 모두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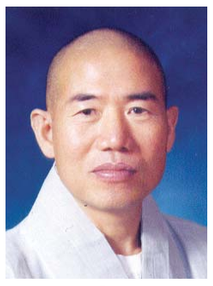
템플스테이도 패키지 시대

호남불교문화원, 제1회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조계종원로의원)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전국 48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어느 곳을 찾을까 고민하는 사람, 한 곳에 머물기가 지루한 사람, 모처럼 얻은 휴가 여러 사찰 다니며 여러 스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 템플스테이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의 템플스테이가 한 사찰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해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다면 호남불교문화원(실장 이준엽)이 마련한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는 6월 25일 고불총림 백양사를 시작으로, 26일 적멸보궁 화엄종찰 화엄사, 27일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28일 선림교해 만화도량 대흥사를 찾아 29일 마치는 조계종 전라남도 4본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조계종 본사 네 곳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찰 선지식과 차담을 나누는 것도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만의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백양사에서는 주지 성오 스님을 만나고, 화엄사에서는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과 자아탐구에 대한 차담을 갖는다. 송광사에 머무는 셋째날은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대흥사에서는 회주 보선 스님과 수행 등 대화를 나눈다.

이준엽 실장은 "템플스테이는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체험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장엄한 불교문화속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시간"이라 말했다. 이번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는 그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호남불교에 대한 애정의 결과다.

이 실장은 "백양사, 화엄사 등 전남 지역 4개 조계종 본사에서 하루씩 머무는 것이 남도 4대 본사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큰스님과 차담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산내암자를 순례해 특별한 감동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템플스테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호남불교문화원의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는 침체된 호남지역 불교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행사의 참가인원은 15명 이내, 동참비는 40만원이다. (062)383-3538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와 태권도 만나다

무주 안국사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개최


6월 7~8일 무주 안국사에서 열린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전북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7~8일 산사체험과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는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제12회 무주 반딧불 축제의 일환으로 안국사와 무주군이 마련한 이번 '태권도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이 동참했다.

초등학생 두 아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찾은 김종호씨는 "예전부터 산사체험을 하고 싶던 차에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졸라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모두 산사에서 수련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안국사 이규평 사무장은 "안국사에서 열린 첫 템플스테이로 시설도 부족하고 준비도 미흡했다. 무주군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에 기대를 보였다.

한편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을 조성해 많은 태권도인들을 무주군에 유치하고, 안국사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불교문화강좌

고창에 첫 문화강좌가 시작됐다. 6월 11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불교문화강좌는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지역민들을 위해 준비했다. 개강 첫날부터 70여명 수강생이 등록해 지역민의 관심이 높음을 보였다.

법만 스님은 개강식에서 "불교문화강좌에 등록한 분들은 지역사회와 지역 불교를 이끌 밑거름"이라며, "오늘 처음 품은 뜻을 강좌 끝나는 날까지 유지한다면 큰 깨우침과 성취감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스님은 "변화가 심하고 전문화된 현대사회에 불교와 불자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는 고창 시내에 포교당을 세울 예정이다.

선운사는 경내에 '선운 공동체 문화관'과 석상마을에 종합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창 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관음사 재곤스님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해"



세계에서 인구 대비 교회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기네스북에도 오른 곳은 군산시 나운동이다. 군산시민이 항상 즐겨 찾는 월명산 아래 재곤 스님이 주석한 관음사가 자리한다.

관음사에 들어서면 그곳이 바로 도솔천. 지장보살 세상이다. 108 지장보살상이 중생 구제의 원과 함께 도량을 지킨다.

재곤 스님은 1978년부터 30년 넘게 척박한 군산 불교를 지켰다. 스님이 불교 불모지 군산에 관음사를 창건한 것은 척박한 지역에 불교를 뿌리 내리려는 원에서 시작됐다. 작은 절이라도 생겨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 스님 생각이다.

"포교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스님은 나름의 역할이 있고 재가불자도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답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해보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도 처음에는 황무지였다는 것을 모르죠. 군산이 원래부터 불교 황무지이지만 그렇다고 개간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황무지 개간하듯 군산지역 포교 앞장

매주 둘째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가족법회는 10년을 훌쩍 넘겼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해도, 내 가족이 불행하면 세상이 불행하다"는 스님은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가족법회마다 재곤 스님이 강조하는 단골 법문내용이다.

스님은 오랫동안 군산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며 군산지역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재곤 스님이 있었기에 군산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불자들뿐 아니라 군산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 군산 교도소 법회와 군산 비행장 공군 38전대 법회도 재곤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관음사 창건 초기부터 시작했던 어린이 청소년 법회 참가자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듬직한 군산 불교의 동량이 돼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지난 10년간 현충일이면 지역 불자들과 함께 군산 군경합동묘지를 찾아 추모 법회를 봉행해 왔다. 재곤 스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평화는 없었다. 호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 불자의 한사람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산시립묘지와 승화원(화장장)에 지장보살상을 봉안해 유족들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할 수 있도록 돕고 매년 우란분절이면 이름 없는 무연고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지냈다.

재곤 스님은 "일부 불자들이 보시한다며 여기저기 상(相)을 내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말한다. 스님은 "진정한 보시는 그늘진 곳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 달 전 고희를 맞은 재곤 스님, 젊은이 못지않은 포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이팔청춘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도심사찰과 시골 절이 손 잡은 뜻은?

어린이 지도자교육 연수회…교류 지속 위해 '기쁜 만남' 사업 추진

도심 사찰과 농촌(도서벽지) 사찰 간의 연계 ·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천진불들의 기쁜 만남'(이하 기쁜 만남) 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주최한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를 공동주관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이 도 · 농 사찰 간 자매결연을 맺고 '기쁜 만남'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 사업에는 부산 홍법사, 진해 대광사, 울산 정토사, 부산 여여서원, 부산 관음사가 도시 사찰로, 강진 무위사, 봉화 관음사가 농촌 사찰로 참여했다. 참여 사찰들은 1:1로 도 · 농 사찰간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하게 되는데, 시범 사찰로 부산 홍법사와 봉화 관음사, 진해 대광사와 강진 무위사가 선정됐다. 이 네 곳의 사찰들은 사찰간의 ▲정보 교류 및 법회 프로그램 교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유(템플스테이 등) ▲홈스테이 운영 ▲어린이 자매결연 ▲지도자간의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례 발표 및 경과 보고는 제 46차 연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현 스님은 "많은 어린이 지도자들이 어린이들과 여름캠프나 특별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야외로 나올 경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다는 문제를 제기하곤 해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석처럼 값지고 빛나는 여름불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어린이 지도자 500여명이 '재미'와 '신심(信心)'이라는 테마의 체험 활동, 어린이 지도자를 위한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에서 진행된 체험 활동은 대나무 물총 만들기, 명상, 합장주 만들기, 단체 줄넘기, 화채 만들기 등으로 모두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법회 및 불교학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어린이 법회의 의의와 목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집중 손유희', '마음을 다스리는 동화 치료'등 11개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는 참석한 어린이 지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강의를 통해 "아이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는 부모의 마음처럼 어린이 지도자들도 아이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록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듯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린이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6월 8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제45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은 도 · 농 사찰간 1대1 자매결연식을 갖고 도농 사찰간 연계 · 교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5계 품고 병영생활"

논산훈련소 장병 수계법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6월 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수계했다. 명성 스님은 이날 2000여 훈련병들에게 "늘 5계를 가슴속에 담고 제대할 때 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비구니회 부회장 일법, 섭외부장 혜성스님, 사서실장 진광, 동학사 학장 해주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 학인스님 40여명이 참석해 장병들에게 연비했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쇠고기 재협상' 촉구 시국선언

충북 종교계 인사 48명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6월 10일 청주 명암교회에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충북 종교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50여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쇠고기 고시철회와 전면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포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화려한 수사를 갖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허탈과 분노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고 쇠고기 정부 고시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교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는 6.10 항쟁의 교훈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며 "특권층을 위한 정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청주 · 청원 조계종주지협의회 설곡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16명, 기독교장로회 김창경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인사 27명, 모충동성당 이수한 주임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인사 5명 등 모두 48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손효선 기자

관세청 직원들 자원봉사

짝퉁의류 등 대전 서구노인복지회관 전달

허용석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사랑동우회 회원 20여명은 6월 9일 점심시간을 이용, 대전시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장곡)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노인 320여명에게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날 허용석 관세청장은 세관에서 압수된 짝퉁 의류(점퍼) 300벌과 20kg 쌀 20포대,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점심식사 봉사에 참여했다.

전달된 의류는 최근 인천세관에서 압수한 명품 짝퉁의류로 검사지휘 및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가 제거된 제품들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소각 처리되는 짝퉁 의류를 뜻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상의해 꾸준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곡 스님은 " 노인복지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후원과 봉사가 꾸준히 이어져 복지사업들이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전통사찰 4곳 문화재 보수

천안시가 지역 문화재에 대해 약 5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에 들어갈 것임을 6월 3일 밝혔다. 천안시는 전통사찰 4곳을 포함해 국가지정 문화재 1점, 도지정 문화재 2점, 향토유적 1점 등 총 8점(곳)을 선정하고, 6월부터 문화재 보수와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포함된 전통 사찰은 ▲광덕사(제246호) 자광당 ▲만일사(제250호)는 산신각 및 요사채 ▲성불사(제10호)는 적묵당 단청 ▲은적사(제 55호) 대웅전 해체 보수 등이다.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청주 보현사 |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

보리수·보현 어린이집 아이들 쉼터로
일상생활 속 불교 실천 교육에 힘 써

청주 율량동에 위치한 보현사 부설 종교법인 '보리수 어린이집(원장 성낙준)'과 사회복지법인 장애전담 '보현 어린이 집(원장 최유진)'의 보금자리인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

평소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주자'는 뜻을 가진 원봉 스님의 보살핌으로 보현사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보리수 어린이 집'과 '보현 어린이 집'의 아이들은 절을 방문하며 생활 속에서 불교를 익히고 있다.



책상 앞에 앉혀 두고 불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 오계'를 생활화 하고, 스님들께 합장하며 인사하는 등 말 그대로 '생활불교'를 실천 하고 있는 것. 6월 13일 보현사를 찾았을 때도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날 방문한 아이들은 '보리수 어린이 집' 6~7세반 아이들로 약 40여명 정도 였다. 이미 여러 번 보현사를 찾았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원봉 스님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며 "4~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불교를 접한다면 은연중에 불교 예절이 몸에 익을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다"며 "특히 불교의 교리는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돼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짧은 사찰 방문이 끝나면 이내 보현사 대웅전은 고요해 진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녀가는 날이면 그 고요함은 더욱 커진다고. 보현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원봉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고, 그곳 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 절을 유치원 어린이들의 쉼터로 개방하기 시작 했다.

일본의 경우 일사일원(一寺一園) 즉, 한 개의 사찰에 한 개의 유치원 또는 유아원이 정비돼 있다. 사찰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사찰 재정을 충당하고, 맞벌이 부부들은 믿음직스러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 여기서 원봉 스님은 '아, 이 것 이구나'라고 생각해 보현사 부설 유치원와 유아원의 쉼터 · 놀이터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

그러나 생각처럼 어린이 포교가 쉽지는 않았다. 처음 유치원을 개설했을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사찰을 방문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도 때도'없이 아이들이 놀이터를 찾듯이 절에 오고 있다.

원봉 스님은 앞으로도 보현사는 어린이들에게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둘 것이라 한다. 곧 '보현장학재단'도 설립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스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마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손효선 기자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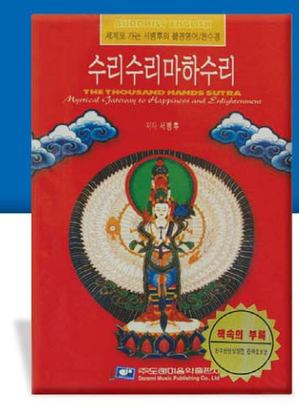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강사 : 정지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교수)
주최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일시 : 2008년 6월 7일 오후2시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골고루 적당량 먹고 운동하라

-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과 건강법 -



조선 왕조가 500년간 지속 가능했던 비결은 주치의를 통한 수명연장의 비법에 있다. 〈삼국지〉의 '화타'처럼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의 의사인 붓다에게도 주치의가 있었을까?

〈해의보살소문경(海意菩薩所聞經)〉(유정(惟政) 譯)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의 주치의로 '기바(耆婆)'가 있었다. 기바는 의학 공부를 모두 마치고 스승으로부터 한 가지 분부를 받는다. 그것은 천지에 널려 있는 온갖 초목들 속에서 약이 되지 않는 것을 찾는 일이다. 기바는 그동안 자신이 공부한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산천초목을 두루 살펴 자신의 눈에 비친 자연 그대로가 모두 약으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붓다는 사리자(舍利子)에게 "명의 기바는 대지를 두루 관찰하면서 세상의 온갖 초목 가운데 약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기바와 같다. 온갖 사물을 바라보면 불교 아님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강연을 맡은 정지천(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국내 대기업의 건강강연 뿐만 아니라 불교방송 뉴스 파노라마 '정지천 교수의 건강보감' 등에 출연하여 건강비법을 전도하고 있다.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고 강조하며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세상에 없다'는 기바의 깨달음을 조선왕조 왕실의 건강비법을 통해 전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에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최상의 음식과 약으로 건강을 수호하였습니다. 불로장수를 위한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내의원(內醫院)의 어의(御醫)들을 주치의로 두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배설한 대소변의 형태와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는 맛을 보기도 하여 왕의 건강을 파악하고 식단을 결정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고 어의들의 진찰을 종합하여 지어 올린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들은 일반 평민과 비교해서 장수 했을까?

왕들 중에 60세를 넘긴 경우는 고작 6명뿐이었고, 평균 수명은 47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이 40세가 되지 못하고 왕들 중에 독살 의혹이 있는 경우가 8명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세에 죽임을 당한 단종, 왕에서 쫓겨 난지 두 달 만에 죽은 연산군, 독살 의혹이 있는 고종 · 순종 · 효종 · 현종 · 경종 · 정조 · 인종 · 선조 등 8명을 제외하면 평균수명이 50세는 될 것입니다.

왕들 중에 60세를 넘긴 경우가 6명밖에 없듯이 최상의 건강관리를 받은 왕들이 모두 장수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추정해 보면 막중한 국정 중요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신하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과 역모에 늘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왕비와 후궁 및 왕자들의 문제로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가 엄청 났습니다. 운동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것과 성생활 및 음주과다 등도 작용했습니다.

역대 왕을 괴롭힌 최고의 질병은?

왕들을 괴롭힌 최고의 질병은 등창입니다. 등창은 이름 그대로 등과 뒷목덜미 부분에 잘 생기고 엉덩이, 허리, 얼굴 등에도 생깁니다. 일종의 종기로서 고름이 피부에 국소적으로 생긴 뾰루지, 즉 부스럼입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이 피하조직에 들어가, 균이 점점 퍼지며 합병증인 패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패혈증이 전신에 퍼지게 되면 뇌막염 등 장기에 염증이 생겨 사망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목욕을 별로 하지 않았고 위생 수준이 열악했습니다. 영양 섭취도 고르지 못해 종기가 아주 흔했고 낫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위생상태가 최고로 좋은 왕의 경우도 종기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종 · 문종 · 성종 · 효종 · 현종 · 정조 등은 종기가 사망의 치명적 원인 이었습니다. 종기의 주된 원인은 막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왕들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었나?

왕을 위한 최고의 건강식은 '검은 색 음식'이었습니다. 검은콩 · 검은깨 · 오골계 · 흑염소 · 토종 검은 소 등입니다. 검은 색은 오장(五臟) 가운데 신장(腎臟)에 주로 작용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콩팥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 전부와 성호르몬을 비롯한 내분비 호르몬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신장이 허약하면 기력과 정력이 감퇴되고 각종 성인병이 유발되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은색의 음식과 약은 조선왕실에서 최고의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건강 요리에는 필수적으로 표고버섯을 넣었는데, 성생활에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화(心火)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왕들은 양기를 성하게 하기 위해 식수로 새벽 5시경에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100번 끓여 만든 백비탕, 해독력이 뛰어난 지장수와 납설수로 만든 환약 등도 먹었습니다.

왕들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

술은 '백약백독(百藥百毒)'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마시고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역대 왕들 중에는 애주가가 많았습니다. 성종 · 연산군 등은 대단한 애주가였습니다. 반면 세조와 영조는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마셨던 술은 한약재로 담근 약주였습니다. 향온주와 백일주가 대표적입니다. 향온주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 때문에 폐서인되어 사가에 있을시 중병이 들었는데 향온주로 기력을 회복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백일주는 왕실에서 합환주로 쓰였는데 인조 임금이 반정공신인 이귀에게 제조법을 하사하여 민간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장수했던 왕은 누구였으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영조 임금은 83세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인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영조 임금은 이복형이었던 경종 임금을 독살 했다는 의혹과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무수리 출신인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건강하셨고, 부친 숙종 임금도 60세까지 사셨으니 건강한 체질을 타고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운이 신장의 정기 이므로 신장이 강하기에 기억력이 뛰어나며 66세에 15세의 신부를 맞이할 정도로 정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역대 임금가운데 가장 풍성한 수염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수염을 비롯한 머리카락도 역시 신장의 정기를 받는 곳입니다.

둘째, 바쁜 업무에도 식사시간은 꼭 지켜서 챙겨 먹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적게 먹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술을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을 판결하고 나면, 손을 물에 씻어 평상시 마음에 들지 않는 왕손, 신하들 집 쪽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넷째, 5일에 한번 있던 내의원의 진찰을 훨씬 많이 받는 등 평상시 건강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한 왕들의 공통점은 바로 조화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적당량으로 세끼 먹고, 매일 운동하면서 성생활을 적당히 해 나간 왕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더불어 종교 활동, 여가활동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심의(心醫)를 으뜸으로 지향합니다. 먹을 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의(食醫)를 차선책으로,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약의(藥醫)를 세 번째로 놓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 등 모든 종교지도자는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건강법을 모두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병은 심의를 찾아 좌선, 기도 등 종교 활동으로 순화하십시오.

몸의 병은 식의를 찾아 먹을 것을 잘 섭취하도록 하고 운동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이 조화를 이룬다면 100세 까지 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연숙 · 노덕현 기자 omflower@daum.net

영조의 건강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
몸과 마음이 조화로우면 장수 가능



내몸내가고치는한국전통따주기강좌(스님반)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6. 28(토) 오전 9시 ~ 6. 29(일) 오후 1시(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향성(香聲)
묘엄 구술 • 김용환 엮음|봉녕사승가대학 펴냄 | 1만2000원

백련향의 음성 글로 엮어

"불가에서는 향냄새를 마치 아름다운 소리와 같다고 해서 향성(香聲)이라고 표현해. 향로에 불을 담아 목향을 피우고 마지를 올리면 연기 올라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 향연(香煙)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했는데, 내 마음에는 그 모습이 지금도 환하게 그려져 있어."

<향성>은 한국불교 비구니승가교육의 큰 스승인 세주 묘엄(봉녕사 승가대학장 · 사진) 스님의 출생과 인생 여정을 담은 출가유행록(出家遊行錄)이다.



"니가 잘 배워갖고 승중(女僧)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큰 중이 되면 안 되나?" 성철스님의 권고로 1945년 봄 윤필암에서 단오 날에 월혜 스님을 은사로 삭발한 스님은 격동의 정화 불사가 한창이던 때의 산증인이 되었다.

청담스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성철스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인간세(人間世)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의 미묘한 향기는 80여년 근현대 불교의 기나긴 기억의 타래를 풀어놓는다. 스님이 떠올리는 청담 스님의 출가는 생사발심(生死發心)이었다. "참선을 해서 자아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꽉 찼어. 부처님이 출가한 것 하고 거의 비슷해. 한가지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하늘이 무너졌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스님의 개인적 속가(俗家) 생활을 포함하여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에 이르는 납자(衲子)의 세월이 막힘없는 강물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1940년대 당시 승가의 일상생활과 수행 풍습 · 해방 후 봉암사 결사 · 한국 비구니강원의 성립 과정을 그대로 전한다. 향을 태운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옆으로 드러눕기도 하고, 곧장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마냥 스님의 삶도 그러했다.

간행은 스님의 연보(年譜)가 작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답하면서 출가행장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찬하되 스님의 진주 사투리가 지닌 역사성을 인정하여 구어체의 생생한 느낌을 손상 없이 전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정기웅 지음|글을읽다 펴냄 | 1만1000원

법과 문화의 향기로 날마다 좋은날



법학자의 냉철한 이성을 감성으로 조율한 수필집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른 날도 있다. 오늘, 아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순간과 오늘을 잘 보내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자 정기웅 교수(건국대 법학과 · 사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다. 대학 시절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 불교에 입문했다. 성철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수십 년째 정진중 이다. 마음을 관조하며 생활하는 사람, 기쁜 날은 신나서 좋고 슬프거나 불행한 날은 그 원인을 알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증장할 수 있으니 그 역시 좋은날 이라고 말한다.

25년간 저자가 잡지와 신문 등에 발표했던 법(法)과 차(茶), 불교와 참선, 그림 감상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와 관련한 수필 26편이 수록됐다. 그는 지금도 거의 매일 인사동에 들른다. 화랑에서 바위 봉우리 위에 푸르고 당당히 자라는 소나무와 만나면 그린 이의 기백과 대화를 나눈다. 머무는 바에 충실히 하루 종일 화두를 들며 참선으로 정진한다.

세상에 생한 것은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사람으로 태어남에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스스로가 주인공인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차를 마시는 기쁨을 알고 그림과 미술인의 만남을 즐긴다. 중국 땅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며 고구려인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진취가 있다. 저자와 세상 이야기에 담긴 30년의 화두를 따라 부담 없이 그와 함께 동행해보자. 법과 인사동의 문화 그리고 문화유적의 향기로 그윽한 날마다 좋은 날이다.

저자는 미술과 불교 분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저술과 자문을 통해 미술인들과 불교 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공로로 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미술인' 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연숙 기자



역경의 의문 해소하는 길



설무구칭경 · 유마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펴냄 | 2만5000원

현장 스님이 번역한 <설무구칭경(設無垢稱經)>과 구마라집의 구역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번역서가 출간됐다.

대승불교 초기에 편집되어 <유마경(維摩經)>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어 온 대승불교 선언문이다. 불교의 교(敎) · 리(理) · 행(行) · 과(果) 전 부분에 대하여 대승의 시각을 선명히 한다.

구마라집 역의 <유마힐 소설경>이 불교의 근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번 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역자는 <성유식론>을 공부하면서 그 논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주석의 <성유식론술기>에 매료된 바 있다. 현장의 문인이었던 규기 스님(632~682)이 현장 역본인 <설무구칭경>에 대해 <설무구칭경소>(전6권)로 소상한 주석을 남긴 바 그 뜻을 잇고자 한다.

이 역주서는 <설무구칭경>의 한역문을 본문의 오른쪽에 두고 그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 한글 번역문은 소의 내용에 의거하여 과목을 나누었고 뒤에 싣는 <유마힐소설경>과의 대조의 편의를 기한다.

<설무구칭경> 본문에 대한 소의 설명은 각주에 수록하였다. 구역 <유마힐소설경>을 읽을 때 현장의 신역 경문과 그 소의 내용을 주석으로 삼는다면 역경의 의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신앙생활의 백과보전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범산 스님 지음
신건출판 펴냄 | 3만원

'믿음은 깊은 못을 건너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라.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리라.'

범산(여래암 주지) 스님이 반야의 언덕으로 향하는 지도를 체계적으로 엮은 의식집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공의식을 재가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고 자가(自家) 기도 때에 도움이 되도록 편찬되었다. 한국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를 위한 시대적 책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한 원력의 성과이다.

법회의 기본 예법과 찬불가를 시작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는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한문과 한글로 함께 실었다. 각 단의 불공과 진언뿐만 아니라 각종 발원문을 포함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자세를 담았다. 내면탐사와 여래 '33천통기도법'은 여래암의 특색 있는 기도법이다. 철저한 기도 불공의 지침서로 완성되는 여정에는 발행을 위한 설판 시주 제자들의 불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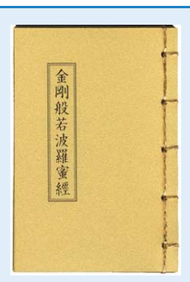
불교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완성된 신앙생활의 백과보전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4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10	기적의 108배 건강법	조현주	사람과 책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영가천도
소장용사
불상량식
복장의식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신심' '원력' 이야기 펴내

신심은 불심 원력은 보살의 마음





혜인 스님.

100만배 정진·불사 추진에 담긴 일화
수행 현장서 길어올린 '금언'들 가득

사자후, 100만 배 정진으로 얻은 보배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고 한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오로지 육성으로만 법을 설했지만, 그 소리가 우렁차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자의 포효(咆哮)처럼.

우리시대 큰스님 가운데도 '사자후'로 이름난 분들이 많다. 지금은 마이크 시설이 좋아 얼마든지 큰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자후는 단지 목소리의 크기로 이름 지어지지 않는다. 설하는 법문 한마디 한마디에 살을 뚫고 뼈를 두드리는 기상과 정신의 근원을 후벼 파는 진리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자후'로 이름난 큰스님들 가운데 '진짜 사자후'를 토해내는 스님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법상에 오른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카리스마를 유지하며 쩌렁쩌렁한 법문으로 청문대중들의 정신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끼얹는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慧印) 스님이다. 하나의 주제를 세우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고래의 일화와 전설 민담까지 적절하게 끌어들여 우렁차게 풀어내는 혜인 스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돌아서서 묻는다. "혜인 스님 법문 테이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라고. 정확성을 장담할 순 없지만, 지난 20여 년 간 혜인 스님의 법문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는 10만 개 이상이 보급됐다고 한다.

'오척단구'인 스님의 어디에서 그렇게 힘차고 막힘없는 설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어릴적에 출가한 스님은 조계사 법당에서 법문하는 어느 스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법문을 잘 하는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 할 만큼 법문 잘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그런 스님이 30세 무렵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 배 정진을 성만한 뒤부터 달라졌다. 막힐 것도 걸릴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헌헌장부의 모습으로 몸과 정신이 바뀌었던 것이다. 기도의 위대한 힘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변화였다. 100만 배가 스님 자신에게 '사자후'의 기상과 힘을 선물한 것이다.

그 선물은 혜인 스님에 의해 다시 세상으로 회향됐다. 바로 약천사라는 대형 사찰의 건립이 다. 혜인 스님이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화장실도 없던 약천사를 지금의 대도량으로 바꾼 힘 역시 100만 배 정진의 원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신심'과 '원력' 불자의 A에서 Z까지

혜인 스님의 이력서는 딱 두 단어면 족하다. '신심'과 원력'이다.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심의 힘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이루고야 마는 것은 원력의 힘이다. 100만 배 정진이나 약천사 불사 그리고 지금 단양 도락산에서 진행 중인 광덕사 불사까지 혜인 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법회 현장과 불사 현장만을 지키며 올곧게 살아 온 혜인 스님이 "나이 70이나 되면 하지 뭐" 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간 법회 현장에서 쩌렁쩌렁한 사자후로 토해 냈던 금언들을 모으고 다듬어 두 권의 책을 엮은 것이다. 책 제목도 <신심>과 <원력>(클리어마인드 1만원)이다. 혜인 스님은 책 머리에서 "신심은 불심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라고 밝힌다.

책에는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 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 있다. 또 대형 불사를 추진하며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큰 원력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지식의 범주에서 나오는 법문이 아니라 실천과 궁행으로 육화된 언어들이 이루어내는 장광설이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장쾌한 폭포수 같은 혜인 스님의 법문들은 '신심'과 '원력'이라는 물줄기를 일관되게 끌어가고 있다.

<심심>에서는 출가 이후 수행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믿음의 공덕이 어떤 것인가를 다양한 일화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준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켜야 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금쪽같은 가르침이다. <원력>에는 기도의 힘과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참회의 중요성, 보살계의 수지와 실천의 중요성 등이 친절하게 설해지고 있다. 책의 중간 중간 시원스럽게 자리한 사진들은 제주 약천사와 단양 도락산 광덕사의 모습으로 혜인 스님의 상좌인 성원 스님(약천사 부주지)이 찍은 것들이다.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혜인 스님의 <신심>과 <원력>을 추천하며 "향상일구는 언설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로되, 등불이 아니면 암실의 실물은 볼 수 없고 언어의 방편이 아니면 수행장정의 진면목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는가?"라며 "혜인 선사의 <신심>과 <원력> 책은 현재의 구도자나 미래의 수행자들에게 지남의 등불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낸 무비 스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혜인 스님의 수행과 삶이 잘 나타나 있는지 축착합착(築着合着)"이라고 찬탄을 감추지 않았다. 고은 시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라고 이 책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했다.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법 | 선우도량 | 1996

호원대학교 오종근 교수

'행복' 중심에 둔 삶 지향되야



여러 해 전 읽었을 때 마음을 넓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었던 책 <화엄의 길, 생명의 길>. 이번 원고를 쓰기위해 다시 읽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 좀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코앞의 일에 마음졸이며 일희일비(一喜一悲) 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니 말이다.

도법 스님이 쓴 이 책은 4부로 나뉘어 있는데, 책 제목과 같은 2부 '화엄의 길, 생명의 길'이 가장 인상 깊다.

좀 더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 지는 것은 왜일까? 원인은 신의 힘이나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인생관 · 국가관 · 세계관 · 우주관 · 생명관 · 평화관 때문이다.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가치관과 개인간, 국가간 이기주의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키려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기기도 하고,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간 이외의 생명을 무시하기도 한다.

인간중심 사고 행복한 삶 더 힘들게해
삶의 완성은 믿음 · 이해 · 실천 · 체험

책에서 도법 스님은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을 위한 실천 내용을 생명의 존귀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확고한 믿음(信), 생명본연의 질서인 자기완성과 세계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의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解), 생명 본연의 질서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실천(行), 생명의 실상인 완성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체험(證)으로 설명한다"고 하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려 하거나 더 좋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일러준다.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버리거나, 생명을 살리느라 진실을 죽게 해서는 안 되며, 경제논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며, 군중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와 일체, 찰나와 영원이 인드라망처럼 서로를 머금고 서로를 비추는 진리의 세계 즉 화엄의 바다로 나아가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연기론적인 불교세계관 즉 상대가 없이 나가 있을 수 없고 상대가 멸하면 나 또한 멸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정신문명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질문명과 어울릴 만큼 정신적 발달이 없으면 현재 물질문명은 은혜가 아니라 재난일 뿐이다"라는 토인비의 말처럼 국가도 소득이 높은 부자나라보다는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에 우선을 두어야 하고, 개인들도 부지깽이처럼 나를 태우지 않고는 아궁이 안의 다른 나무들을 잘 타게 할 수 없다는 알아, 일심동체의 세계관으로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는 삶이 불자다운 삶이다. 이런 나의 생각들을 <화엄의 길, 생명의 길>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은 무척 즐거웠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 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사물을 분석·고찰하는것

오늘의 禪語

㉓ 알음알이와 분별

'알음알이'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약삭빠른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흔히 '잔꾀' '잔머리' 등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 '알음알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공개적인 것이 아닌 '몰래몰래' '살짝살짝 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음알음으로 취직하다'는 말도 그런 뜻으로 모두 다 '정정당당하지 못함' 또는 '자기 나름대로'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은 않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심 깨달음 막는 적

선에서 '알음알이'는 '잔머리를 굴리다' '헤아리다' '측량하다' '억측하다' '분석하다' 등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에서는 아주 금물로 간주합니다. 정면으로 화두를 참구하지는 않고 머리를 굴려서 암암리에 알려고 하는 것, 또는 이리저리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알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실제적인 수행은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알음알이를 한자로는 '지해(知解: 知=알음, 解=알이)'라고 씁니다. 슬기로움을 뜻하는 '지혜(智慧)'가 아니라 '지능' '약삭빠름'을 뜻하는 '지해(知解)'입니다. 한자로는 그럴싸하지만 쓰임새는 다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음알이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어록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로 '사량(思量)·분별심(分別心)을 갖지 말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량심'은 생각으로 측량, 헤아리는 마음이고 '분별심'은 사물을 구별하여 가리는 마음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이 역시 알음알이의 일종입니다. 시쳇말로는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분석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석력이 없으면 정치도 사업도 학문도 논문도 쓸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력 아래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사물의 실체를 파헤치는 분석적인 사고나 또는 지식의 산물인 알음알이, 종류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심 등은 모두 깨달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과 일반의 시각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의 목적은 무집착·무소유이고 사회일반의 목적은 소유이며, 선의 탐구방법은 직관이고 무분별이며, 일반의 탐구방법은 분석적·분별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분석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 경전이나 학문을 탐구한다거나 교리를 연구하는데도 분별·분석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분별·분석력이 없다면 어떻게 경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별력과 분석력 등은 화두를 참구하는 선에만 금기시하는 것이지, 교학에서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에서는 사량·분별심과 분석력·알음알이 등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 알음알이나 사량·분별심 또는 분석적 사고는 모두 한결같이 지능적 관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실제적인 수행을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굴려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뿐 체험을 통하여 확인·고증·체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의 세계는 실제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空)·중도·무집착의 세계를 인식·실천·체득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사량·분별하거나 알음알이에 매달리게 되면 정신력·집중력이 분산됩니다. 특히 '알음알이'와 분별심은 이걸까 저걸까 하는 '망설이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동반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곧장 한 길로 매진해야 하는데 망설이거나 방황한다면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되게 하자면 화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분산된다면 끓지 않습니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셋째는 공(空)·중도·무집착 등 선의 철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선과 화두탐구의 목적은 번뇌와 욕망 등 일체 잡념을 비워 공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알음알이나 분별심은 이것저것 구별하여 머리를 꽉 채우는 행위로 무집착·공(空)과는 반대입니다. 선에서 분별심·알음알이·분석적 사고 등을 마치 '질이 안 좋은 놈' 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선원에 들어가면 입구나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入此門來(內)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

이 선원에 들어온 자는 알음알이를 갖지 말라.

불교에서는 지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혜 가운데에는 분별지(分別智)와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있습니다. 분별지는 사물을 분석·고찰하는 것으로서 분별심·알음알이·분석적 사고 등이고, 무분별지는 분석을 떠나 사물을 직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문학에 비유하면 소설이나 수필 등 산문은 분별지의 산물이고 시(詩)는 무분별지, 직관의 산물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佛性은 볼 수 없고 스스로 체득하는 것

㉓ 요연 비구니

중국 당(唐)나라 때, 고안대우(高安大愚) 선사의 제자인 요연(了然) 비구니는 날카로운 기봉으로 선객들을 쩔쩔매게 한 여장부로 <전등록>에 이름을 올린 선사이다. 그는 말산(末山)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말산요연(末山了然) 스님이라고 불렸다.

어느 때, 요연 비구니가 말산에 있을 때 관계지한(灌溪志閑 ?~895) 선사가 선지식을 찾아 다니다가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말하며 승당 안으로 들어갔다.

"만일 상당하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선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요연 비구니가 시자를 보내 물었다.

"스님은 산에 유람다니러 왔습니까? 불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관계 화상은 '불법을 위하여 왔노라'고 대답했다. 요연 비구니가 법상에 올라앉으니 관계 화상이 앞에 나아가 뵙자, 요연 비구니가 말했다.

"스님은 오늘 어디서 떠났습니까?"

"길 어귀(路口)에서 떠났습니다."

"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로구(路口)는 지명도 되고, 길 어귀를 가리키는 이중의 뜻을 담고 있다.

'왜 덮어버리지 않는가?'라는 뜻은 '길 어귀를 어슬렁거린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공격이다.

이 말에 관계 선사는 말이 막히고 말았다. 관계 선사는 자존심이 상했고, '비구니가 아무리 잘 나도 남자 보다 안목이 뛰어날 수 없지 않은가?'하는 편견이 남아있다. 이에 관계 선사는 예배하면서도 재차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어떤 것이 말산(末山)입니까?"

"꼭대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말산의 주인입니까?"

"남자 모양도 여자 모양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관계 선사가 '할'을 하면서 "어째서 변하지 못합니까?"하니 "귀신(神)도 아니고 도깨비(鬼)도 아니거늘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대답했다.

날카로운 기봉으로 선객들 쩔쩔매게 한 선사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

이 문답에서 '말산'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말산요연 스님의 본성(本性)을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요연 스님은 '말산은 그 이마를 드러내지 않는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머리 위와 같기에 누구도 본 일이 없다'는 뜻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본성, 즉 불성(佛性)은 스스로 체득하는 것일뿐, 볼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다.

'그렇다면, 말산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관계 선사가 다시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하는데, 스님은 여성이지 않은가? 어째서 여성을 초월하지 못하는가?'하고 질문하자, 요연 스님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다.

'어떻게 그런 가당찮은 질문을 하는가? 본래 성품은 귀신도 도깨비도 아니라네.'

카운터 펀치를 맞은 관계 선사는 요연이 여성의 몸이면서도 성별을 초월해 살아가는 선객임을 느끼게 된다. 불성은 남녀와 노소가 따로 없이 평등함을 자각한 것이다. 요연 비구니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이를 깨우쳤고, 관계 선사는 수좌라는 상(相)을 버리고 편견없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에 관계 선사는 이 절에서 3년간 원두(園頭)의 소임을 맡아 수행하였고, 나중에 임제의현(?~867) 선사의 법을 계승한 큰스님이 된다.

이처럼 많은 선객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요연 비구니가 남긴 오도송은 이러하다.

"오온의 망상 무더기가 그대로 고불당인데(五蘊山頭古佛堂)/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야로 백호광명을 항상 놓고 있네(毘盧晝夜放毫光)/ 만약 여기에서 차별없는 이치를 안다면(若知此處非同異)/ 곧 이 화엄장엄이 시방세계에 두루 하리라(卽時華嚴遍十方)."

우리가 나(我)라고 집착하는 '물질과 정신작용'(오온)은 허깨비와 같지만,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진리의 몸이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님을 안다면, 시방세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다. <증도가>의 "배움이 끊어진 일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이며 환상의 헛된 몸이 곧 법신이로다"하는 법문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343일 조상천도재**=서울 조계사가 6월 28일 오전 10시 343일 조상천도법회에 입재한다. 회향은 2009년 6월 5일 오전 10시. 8월 15일, 10월 3일, 11월 21일, 2009년 1월 9일, 2월 27일 4월 17일 6월 5일 천도재를 지낸다. 지관, 무진장, 동춘, 혜정, 도문, 정무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선다. 천도재를 지낸 이후 구병시식을 봉행할 예정이다.(02)732-2115

●**통도사 여름수련회**=양산 통도사가 6월 25일까지 여름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발심수련회는 7월 7~8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회발심수련회는 9~12일, 불교대학등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진수련회는 14~15일, 참선수련회는 16~19일, 가족수련회는 24~2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싹수련회는 8월 4~6일,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희망수련회는 7~9일, 단기출가수련회는 11~13일 진행된다.(055)384-8380

●**제15회 팔만대장경강설 대법회 〈미륵상생경〉**=합천 해인사가 제15회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6월 28일 오후 2시 보경당에서 개최한다.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이 법사로 나서 팔만대장경 중 미륵사상과 미륵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미륵상생경〉을 강설한다. 동참비는 1만원이다.(055)934-3000

●**용문사 철야기도**=남해 용문사가 6월 20~21일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매월 음력 17일 저녁 10시에 입제해 18일 지장재일에 회향하는 철야기도를 6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매달 음력 17일은 철야기도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참금은 5만원.(055)862-4425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역학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강의
(4개월 과정)
명리 육효 관상 대모집
■ 교육목적 : 역학의 학문적 위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역학인을 양성시키기위해 역학 필수과목인 명리 육효 관상의 기본과 실전능력을 고양시켜 대학과 대학원등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역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 역학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과 목	강 사	교육과정	시 간(매주)	개강일시
명리학	유방현	4개월	10:30-13:00	6월28일(토)
육효학	유방현	4개월	11:00-13:00	6월27일(금)
관상학	최인영	4개월	10:30-13:00	6월29일(일)
역한한문	최인영	4개월	11:00-13:00	7월 3일(목)

■ 모집대상 :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 육효학 관상학 지도자과정 희망자 우선
· 서라벌대 풍수명리과 입학 희망자 우선
· 대전대학교 동양철학과 입학 희망자 우선
· 역학 전문가 및 창업 희망자
■ 강사약력
유방현 원장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명리학 지도자 과정 전임교수 · 현 서라벌대학 풍수명리과 교수 · 현 대전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초빙 연구원 · 저서:초씨역림(신지평), 만방역학(명문당)
최인영 교수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명리학 최고지도자과정 교수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관상학 교수 · 저서:면상비급(청학출판), 육효점정론(삼한출판사)
■ 교재비 : 월 3만원(교재 및 관리비포함)
■ 장 소 :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 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기업은행사이길 80미터)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KTA)
연락처 02)929-4646, 011-9902-4640

"장문의학" 특강
수상으로 보는 질병예측 진단학
공개특강 및 개강일시
2008년 6월 22일(일)14시 - 17시 개강(8주 완성)
장문의학이란?? 사주의 분야 가운데 수상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학문으로 역학인들의 순조로운 상담을 위하여 최단시간에 능력 있는 질병예측 전문가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하며 그 위상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이론과정입니다.
강의내용-학습 및 실습내용
◆ 동양학을 공부하는 방법론 제시
◆ 손을 보고 질병을 예측하는 장문의학의 비법이론 100% 공개
◆ 손의 중요 14선과 8종 병리문에 대한 해석 100% 공개
◆ 70여종의 현대의학의 질병을 환자의 실질 사진을 통한 학습
◆ 최초로 공개하여 단기간 학습으로 완벽하게 응용할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보장
◈ 담당교수 : 정수호
◈ 교수약력 : · 북경중의학대학 중의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 현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학과 · "제상학 연구과정","사주와 질병의학" 담당 지도교수
◈ 저 서 : "사주대로 병이온다","명리대정전" "명리학 길라잡이", "나의 운명 나의 건강"
◈ 시 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4:00 - 17:00까지
◈ 모집정원 : 15명
◈ 수 강 료 : 50만원
◈ 장 소 :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기업은행사이길 80미터)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KTA)
연락처 02)929-4646, 011-9902-4640

대한불교 국제 조계종 입종안내
국제 조계종은 국제화시대에 거듭나고자 불기2552년 1월 4일 '등록번호 37501-00146호'로 창종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열린 불교홍법에 동참하실 분은 즉시 연락바랍니다.
■ 안내 내용
1. 종정(1분)
2. 총무원장(1분)
3. 각 시,도 종무원장
4. 승려 및 창건주(대표자)
■ 구비서류
1. 입종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여권사진 4매
4. 이력서 1통
5. 사찰 및 포교원 내,외부 사진 각 1매씩
◈ 입종 후 특혜
본 종단은 미국 괌 정부에서 등록 허가된 국제불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원하는 분들에게는 장학금으로 국제불교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한 국 : 010-9945-2030 국제조계종 이사장 석일봉
· 미국 괌 : 671-988-3601 국제조계종 조계사 주지 석일봉
미국 국제 불교대학교 총장 석일봉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지도"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 나의 발견 ◇ 나의 계발 ◇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선지식을 찾아서 우룡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47년 해인사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5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에서 강사를 지냈다. 수덕사 능인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쌍계사, 통도사 극락선원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다. 현재는 경주 함월사에 주석하고 있다.

"가족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것이 최고 수행"

"착각이 우상입니다."

우룡 스님이 생각하는 착각은 우상을 우상인줄 모르고 섬기는 것이다.

"지금 한국 불교는 착각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인들은 멀리만 쳐다보고 가까운 곳은 보지 못합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라, 내 발밑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조각이 나는지 압니까? 내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남편의 일, 아내의 일을 부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룡 스님께서 "부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하고 물으신다. 이 물음을 던지면 대개의 사람들은 주로 법당이야기만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한다.

"저는 법당에서 다리 아프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에 와서 삼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에게 삼배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예불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불상 앞에서는 천배도 삼천배도 하면서 왜 내 가족에게는 무릎을 꿇지 못하느냐고 다그쳐 물으신다. 우리는 흔히 절을 함으로서 아상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룡 스님은 내 가족에게 먼저 삼배를 함으로써 아상을 지워 나갈 것을 당부한다.

이 대우주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우리는 평생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가슴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러니 언제나 충돌이 오는 것이다. 부부지간에 자식과 부모간에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다보면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

"내가 먼저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처님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하면 남편 또한 그렇게 됩니다.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부처님처럼 대하면 자식이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안이 조화를 이루고 행복이 오고 그렇지요. 그런데 집안의 화목이나 조화는 팽개치고 불상 앞에서 복달라고 절을 하면 복이 옵니까? 내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고 웃음소리가 나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상을 죽이는 가장 좋은 수행방법은 내



내 가족에게 허리 굽힐 때 행복이 절로 살아있는 불교는 '현재'를 잘 사는 것

가족이라는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것이라고 우룡 스님은 강조하였다. 이렇게 삼배를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쌓아 온 원수 혹은 원결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돌도 없어지고 서로 감사의 말만 하게 된다. 가족에게 허리가 저절로 굽혀질 때 여기 부수조건으로 행복과 물질적인 것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대우주가 전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하는 말을 자꾸 해서 복을 내쫓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복을 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들여다 볼 일이다.

"불교인이라면 아침저녁으로 가족에게 삼배씩 올려야 하고, 밥상머리에서 꼭 합장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잠시 합장을 하고 먹으면 빚은 지지 않겠지만 그동안 지은 빚은 그대로 있어요. 옛 어른들은 반야심경을 한편 조용히 왼다면 밥 한 그릇에 대한 빚은 청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빚지고 사는 것인데, 하물며 가족에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 또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불교의 요체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궁금하였다.

"금강경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란 꼭 보리심의 이야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외간의 이야기, 자식과 부모간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 미처 내가 몰랐군요.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안그럴께요.' 이것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방 스님들이 좌복 위에서 깨닫는 보리심만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인줄 아는데 너무 멀리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과 직결되는 마음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이요 보리심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해서 앞의 이야기가 꺾어지지 않고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끝내는 부처님의 자리 구경각(究竟覺)에 도달하게 만들어야 한단다. 구경각도 내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불교도 불자도 발전이 있고 향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생에 깨닫겠다고 하는데 내생은 다음의 시간이지 지금의 시간이 아니니 탐낼 것이 못됩니다. 꼭 이 몸뚱이가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것만이 내생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5분(分)후가 내생이고 1시간 후가 내생이지. 부처님의 이야기를 실생활에 1분 전에 1분 후에 갖다 붙일 수 있어야 해요."

죽은 불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만질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순간'만이 유효함을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대우주의 진리요, 도(道)'라는 우룡 스님의 간단명료한 법문을 듣고 나니 마치 보물이라도 품에 안은 듯 환희심이 밀려온다. 가족에게 삼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일상 속에서 도를 이어갈 수 없으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염불, 주력, 화두를 해야 한단다. "지금 우리는 대우주와 동체인 유일무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깜빡했기 때문에 본래의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래의 내 힘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염불주력 화두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것이 내 살림이 되는 것이지요."

은사께서 지으셨다는 설법전(說法殿)의 주련을 읽어주었다.

碧眼老胡?少林 神光立雪更何尋(벽안노호묵소림 신광입설경하심)

山光水色非他物 月白風淸是佛心(산광수색비타물 월백풍청시불심)

눈 푸르른 점잖으신 오랑캐(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말이 없는데, 신광대사는 눈 속에서 다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산빛 물빛이 다른 것이 아니고 흰 달 푸른 바람이 모두 부처님 마음일세.

주련의 글귀도 좋았지만, 달을 머금은 절이라는 금오산(金鰲山) 함월사(含月寺)의 이름이 너무 시적(詩的)이다. 금자라가 달을 다 먹어버리면 캄캄하여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내 보낸다면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우룡 스님이 직접 지어신 것이다. 세상살이에 있어 중도를 지키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스님은 사명(寺名)에도 그런 가르침을 아로새겨 넣은 것이 아닐까 싶다.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SHC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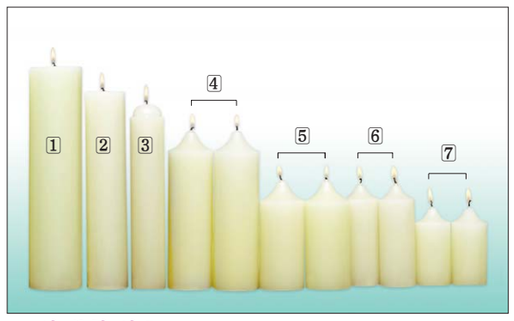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2 깻잎감자전

감자에는 장수식품의 비밀이 있다.

생즙을 내어 먹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먹기가 거북하거나 번거로울 경우에는 삶아서 먹거나 요리를 해도 좋다. 감자에 들어 있는 비타민C는 다른 야채처럼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독일 및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예로부터 감자를 땅속의 사과, 땅속의 영양덩어리라고 부른다.

빈혈예방과 치료에도 역시 감자가 최고다. 빈혈에는 종류가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이 체내의 철분부족에서 오는 빈혈이다. 이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철분을 많이 섭취한다 해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배설돼 소용없기 때문에 비타민C와 위산의 작용이 필요하다. 감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철과 결합해 장흡수를 도와 빈혈 방지 효과가 매우 크다.

감자의 식이섬유 및 칼륨은 성인병을 예방한다. 감자에 많이 함유된 칼륨과 식이섬유가 작용해 소화기관 속의 염기성분인 나트륨을 변과 함께 배설시키고 나트륨 흡수를 방지한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지방이나 당질의 흡수를 방해해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고 장내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서 변비를 개선시킨다. 고혈압과 뇌졸증을 억제하기 위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1정도가 좋다. 감자에는 칼륨이 나트륨의 12배나 들어있어 전체적인 양자의 비율이 유지된다.

감자는 알카리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감자는 빈혈·당뇨병 예방에 큰 효과

알칼리성 저칼로리 건강식으로 각광

당뇨병 예방을 위해 감자 식이요법을 해도 좋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밥이나 고구마보다 낮고 소화는 서서히 이루어져 쌀밥처럼 혈당치의 급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인슐린 생산이 감소하므로 감자는 당뇨병 환자의 주식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또 감자는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견뎌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산촌 (02)735-0312



깻잎감자전

재료 : 감자, 깻잎, 밀가루, 소금, 식용유, 식초

만드는 법

① 감자는 모양대로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아삭아삭하게) 소쿠리에 담아 식힌다.
② 깻잎은 잘 씻어 건져 소쿠리에 담아서 물기를 뺀다.
③ 밀가루는 전 부침 반죽을 한다.
④ 데친 감자 하나에 깻잎 한 장으로 싸서 밀가루반죽을 씌운 다음 뜨거운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노릿노릿하게 구워서 초간장에 낸다.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1 부정교합 교정〈2〉

충치·잇몸질환 등 합병증 예방해야

옛부터 희고 가지런한 치열은 미인의 필수조건으로 꼽혔다. 반대 경우인 부정교합은 치아가 삐뚤어져 치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다. 이를 바로 잡는 치료를 치아교정 치료라 한다.

부정교합은 단순히 미관상 보기 흉하다는 문제를 넘어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전신건강에 해를 끼치며,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심리적 열등감을 갖게도 한다. 특히 어린이는 남 앞에 나서기 꺼리는 소극적인 성격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칫솔질이 어려워 충치나 잇몸질환에 걸리기 쉽다. 입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부정교합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 ▲치아가 돌출된 경우 ▲주걱턱에 의해 아랫니, 윗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윗니가 완전히 아랫니를 덮는 경우 ▲앞니 사이가 뜨는 경우 ▲어금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치아가 없는 경우 ▲엄지손가락을 빠는 등 나쁜 습관으로 치아가 삐뚤어진 경우다.

치아 교정치료에는 일반교정과 설측교정, 소아교정 방법이 있다. 일반교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장치를 치아 바깥쪽으로 장착한다. 메탈 또는 세라믹 교정장치(브라켓)를 사용한다. 메탈 브라켓은 치아교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색상이 은색이라 심미적이지 못하지만 기능면에서는 다른 재료에 비해 좋다. 소아교정에서 많이 쓰인다.

세라믹 브라켓은 메탈 브라켓보다 심미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치료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심미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성인교정에서 많이 사용된다.

설측교정은 심미적인 치아 안쪽으로 교정장치를 부착해 장치가 노출되지 않는 치료법이다. 심미적인 치료를 원하는 성인에게 적합하다. 현재까지는 설측교정 치료법은 환자에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이 없이 치료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설측 교정치료 환자의 90%가 성인이고 그 중 2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과거부터 교정치료에 관심이 있었지만 치료 받기를 망설였던 이들에게 교정치료 기회를 주고 있다.

투명교정은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장치를 얇고 투명한 장치를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제거할 수 있고, 교정상태에 따라 교정장치를 바꿔 착용함으로써 치아의 이동이 이뤄진다. 주로 치아 사이 틈이 벌어진 겨우나 치아와 입술의 돌출이 없고 치아의 비뚤어진 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소아교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다. 이미 주걱턱, 무턱 등의 턱뼈 골격에 이상이 보이는 어린이라면 6~8세를 전후해 교정전문의를 찾아 악골의 성장 조절치료를 받아야 한다.

골격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치열이 불규칙해 덧니가 있는 경우는 영구치가 거의 다 나왔을 때 교정치료를 한다. 골격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좀 더 일찍 교정치료를 시작한다. 특히 아랫니와 윗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는 젖니만 있는 경우라도 발견되는 즉시 치료해야 한다.

치아 교정 치료기간은 개인마다 부정교합의 양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각 개인의 치조골 특성, 교정력에 대한 반응 차이, 부정교합 정도, 환자의 협조도 등 여러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지 않고 치료하면 1년~1년 반, 치아를 뽑았을 경우 1년 반~2년 이내 기간이 소요된다. 6개월에서 1년이 채 안 걸리는 간단한 경우도 있다. (02)776-2882

광고 따로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❸

자연과 하나되려 덕유산 기슭으로…

마음 속 깊이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겼다. 깊은 산속 자연을 갈구하며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깊은 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바랑 속에는 누룽지 한 자루와 외제향 한 갑을 넣고, 어릴 적 인연으로 마음 속 스승이었던 도인을 찾아 지리산을 헤맸다.

어느새 덕유산 기슭까지 왔다. 덕유산에 도착했을 때 태풍 '매미'로 도저히 발길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불었다. 그때 길 건너로 다 쓰러져가는 텅 빈 집이 보였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흩어진 유리파편과 흔들리는 문짝 그리고 심한 바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경 천둥 같은 소리로 흰 도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보였다. 아픈 사람이 우뚝 선 그분 앞으로 돌아 나오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버리고, 엎드려 온 사람은 반듯하게 서서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분 곁에 다가서니 흐르는 시냇물에서 유리병 하나를 건져 전해주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정신 차리지도 못한 채 할아버지가 떠난 곳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지만 할아버지에게 받은 병이 없는 것을 보니 현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발원했다. "이곳에 저를 머물게 해준다면 남은 인생 중생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지난 후 길가에 반쯤 파묻혀 펄럭이는 현수막에 집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달려온 주인은 나를 보고 실망의 눈빛이 역력했다. 목돈으로 전세금을 받던지 팔 생각이었는데 초라한 내 행색을 보니 어려웠기 때문이리라. 주인이 그냥 가려는 순간 "일주일만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주인은 그러라며 떠났다. 누룽지로 끼니를 때우며 일주일 내내 기



도했다. 주인과의 약속된 기간이 끝나 떠나려는데 밖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집 주인이 다시 온 것이다.

집주인은 "스님 여기 사시면서 앞으로 이집을 사시던지 아니면 스님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시작된 집주인과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함양 사는 S보살이다. S보살은 그렇게 3년의 기회를 내게 주고 떠났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내게는 꿈만 같았다.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며, 꿈에 본 도인이 마음 한자리에 스쳐 지났다.

그때부터 덕유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방을 둘러보니 백두대간으로 뻗은 산이요, 약초 골이며 청정무공해 〈동의보감〉이 숨쉬는 심신 산골로, 어릴 때 할아버지와 캐던 산야초 잎 열매가 바로 곁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첩첩산중'이었다. 우선 방 한 칸을 법당으로 꾸며 새벽 예불을 올렸다. 기도 정근에 목이 따가워 창문을 여니 바람에 불이 꺼지고 문이 덜컹덜컹 떨어질 것 같아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055) 941-1083 <계속>



불교적 색채 덧입힌 태국문화와 만나다

전통인형극 '곤(Khon)' 19일부터 이틀간
영화 '카르마' 씨너스극장서 19일 개봉

한국이 아세안 한류의 중심인 불교국가 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거대한 와불상이 모셔진 왓포! 417년간 왕조를 수호한 아유타야 유적! 비행기로 5시간이면 느낄 수 있는 태국 문화를 향한 찬사는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전 인구의 93%가 불교도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대한 불교 유적임을 도시 곳곳에서 확인한다.

그러한 태국 불교와 문화의 숨결이 한국을 찾았다.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행사로 반세기 수교사를 기념한다. 1958년 10월1일 국교 수립 이후 문화교류 정책의 추이를 체험하는 기회다. 공연 무대에서 펼쳐지는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은 태국의 과거 문화유산을,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주제로 한 공포 영화<카르마(Karma, 業)>는 태국의 트랜드 문화를 대변한다.

<Amazing Thailand –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은 6월 19 · 20일 양일간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태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태국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맛볼 수 있다. 전통인형극 곤(Khon), 가면무용극, 민속무용과 실내악단의 연주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조 투이스 태국전통인형극단과 번딧팟타나실파 연구소는 실력과 전통을 겸비한 태국의 손꼽히는 예술단체이다.

'곤'은 불교와 힌두교 문화에 전해오는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의 용맹한 장군 '하누만'을 그린다. 천상의 신 '비슈누'와 '락시미'가 인간계로 내려와 라마 왕과 시다 왕비로 태어나고, 악인 '토차칸'이 왕비를 납치하자 선과 악의 군대가 대결한다. 종교제의의 제스처에서 비롯된 미묘한 손발과 관절의 꺾임, 화려한 수공예 의상, 악단의 노래로 고대 태국의 왕실과 만난다. (02)2280-4114

<카르마>는 한국과 태국의 공통된 정서인 '한(恨)'을 주제로 한 감성 공포영화다. 현상의 일체는 '카르마(Karma)'에 의한 인연법임을 이야기한다.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인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극의 전개를 뒷받침한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태국의 전설을 바탕으로 죽여서까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랑을 간직한 두 여자의 한(恨)이 만들어 낸 애잔한 정서를 담았다. '아름답고 슬픈 호러'라는 수식어에서 짐작하듯 영화는 전쟁 중 떠난 남편을 찾아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처녀 '누알'과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스럽고 고혹적인 '란' 부인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 프랑스 점령기로 미얀마와 태국의 내전상황이다.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영화 <옹박>으로 친숙한 '콘케이코메시'가 맡았다. 오랜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흥미로운 태국의 감성을 전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국립극장에서 펼쳐지는 <Amazing Thailand –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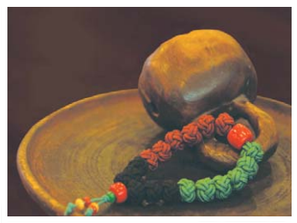
태국영화 <카르마>의 한 장면.

한 올 한 올 고이 엮은 '佛心'

'매듭염주展' 이달 16일까지 예나르 화랑서 개최



전통매듭 연구가 성낙윤 선생.





매듭염주 작품.

전통매듭 염주에 불심의 정진력을 담았다.

전통매듭 연구가 성낙윤(소유 대표)씨는 6월 16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고미술 전문화랑 '예나르'에서 매듭염주 전시를 연다. 한복의 장신구나 전통공예품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우리의 전통 매듭이 알알이 맺힌 불심과 만난 것. 예술적인 기품이 진중히 깃든 일상의 종교용품이다. 구슬형태의 가락지매듭이 지닌 부드러움과 다양한 색상이 자연의 소박함과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평소 매듭염주를 선물하던 것이 오랜 즐거움이다. 이 염주로 기도하시는 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매듭 한 알 한 알을 밀화 · 산호 · 비취와 같은 귀한 보석으로 여기며 일념으로 엮었다. 부처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그 시간은 무아의 세계를 거니는 행복과 같다"고 말한다.

인간문화재 최은순(87)에게 매듭을 배우고, 삼배와 길쌈은 인간문화재 김점순(1918~2008)에게 배웠다. 현재 청담동에서 혼례용품과 사계절 침구 등 인테리어 소품을 손수 제작하고 있다. (02)739-4200

가연숙 기자

불상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

트렁크갤러리 '이단, 이단하다 展'

불상과 여성의 벗은 몸이 중첩된 이미지가 있다. 나의 견분(見分:주관)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 겹침의 혼합이 흥미롭고 또한 혼란스럽다.

불상에 투사된 조형성과 상징성에 도전한다. 6월 10일 트렁크갤러리(박영숙 대표)에서 막을 내린 "이단, 이단하다"展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시대의 '몸의 정치학'을 기초로 한, 자신의 섹슈얼리티적 욕망을 구성한다. 부처의 상에 내재된 경도된 자기애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불이(不二)다. 나를 향한 사랑과 보살이 지닌 자비가 하나의 의도된 자연스러움으로 결합하며 이들 사이의 경계를 동요시킨다. 누드가 지닌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폭력이 아닌 신성함의 결계를 형성한다.

불상과 욕망, 이 둘은 대원력이다. 작가 이단은 자아의 욕망을 불상이라는 거울로 투영한다. 불상이 지닌 경건함과 진리의 생명력을 전유하여 거짓된 우상을 파괴하고 여성의 나르시시즘을 찬양한다. 시대를 살아가는 나(self), 초월 하려는 자아의 확장, '여성성'에 의존하는 내 몸의 해체는 또 다른 상상력을 추구한다. 기존질서의 혼돈함을, 내 욕망의 실체를, 통념적 가치관에 시달리는 내 내면의 솔직한 고백이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구도이다.



작품명 'Quantiy of matter #2'.

가연숙 기자

성륜 스님 소나기展
18일부터 24일까지

한바탕 비가 내린다. 누군가의 갈증을 식히고 누군가의 집이 될 진우(陣雨)다.

'조그만 샘에서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다시 샘으로 돌아간다. 삶의 언덕도 또한 그러한데. 그런 가운데 물고기는 재복을 이루고 집안을 지켜준다는 속설이 있으니 그 힘을 빌려 샘에서 나온 물로 차 한 잔 다려 올려야겠다.'

성륜 스님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서호에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소나기(陣雨)展 을 연다. 일상의 깨달음을 해학적으로 선화(禪畵)와 접목시킨 화가의 미술세계와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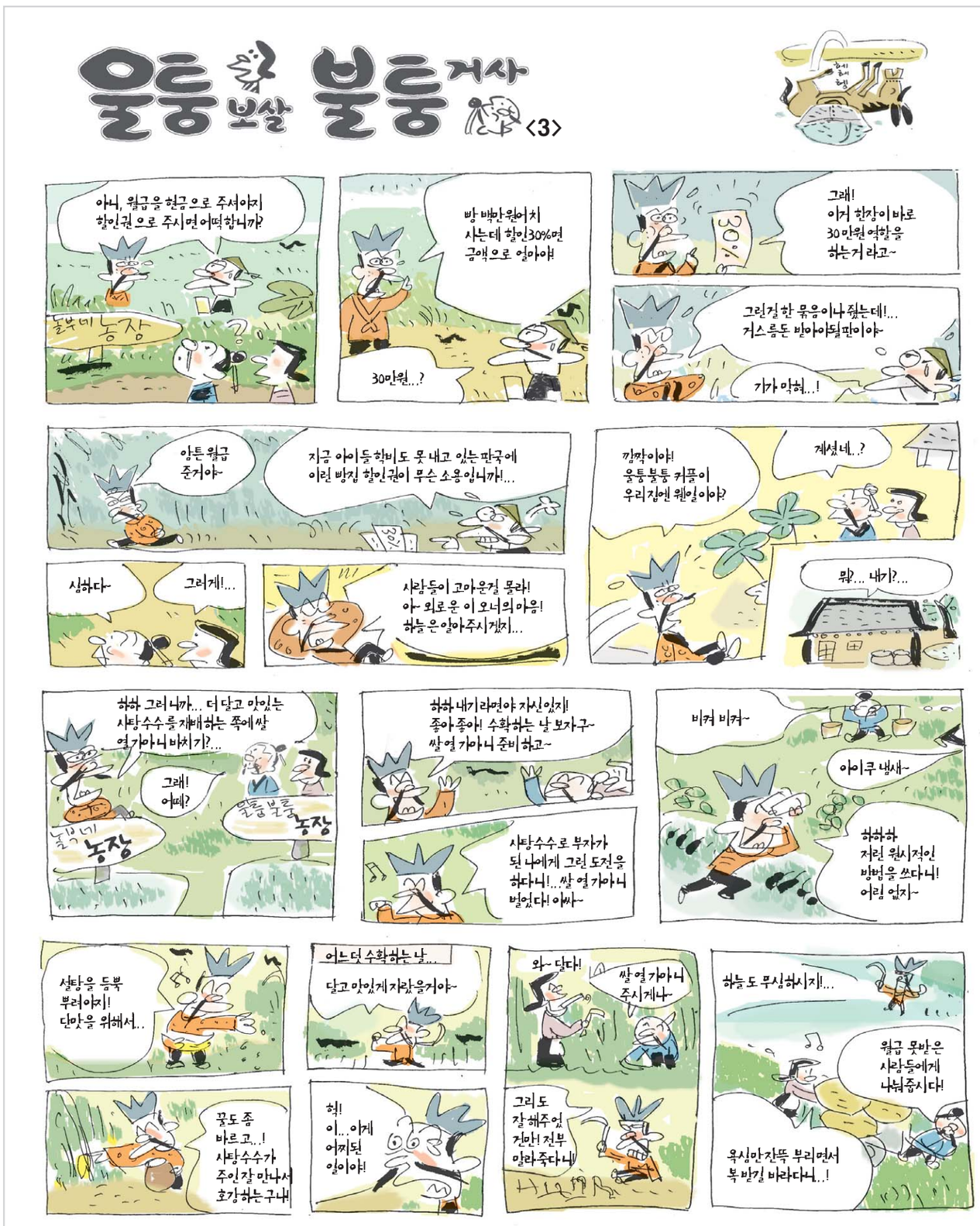
선정에 든 선방 스님의 표정 속에는 현악 3중주가 담겨 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이 감싸는 우주를 노래한다.

가연숙 기자

대웅전 건립불사
천 선 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기 : 1,000㎜×2,000㎜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45㎜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제품문의 011-9230-2335



사탕수수를 망친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두 사람이 사탕수수를 심으며 서로 맹세했다. "좋은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좋지 못한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자." 그 때 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탕수수는 아주 달다. 만일 즙을 짜서 그 나무에 다시 주면 그 맛은 다른 것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는 곧 사탕수수를 눌러 즙을 짜서 나무에 쏟고는 맛이 좋아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도리어 종자만 못 쓰게 되고 많은 사탕수수를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같이 재물과 권력을 위해 힘을 다하고, 세력을 빙자해 백성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는다. 그것으로 복의 근본을 짓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것은 마치 사탕수수를 짜서 이것저것 모두 잃는 것과 같다.

옛 팔화의 세계

삼독의 불을 끄고 열반에 들라

항복화룡(降伏火龍)


석씨원류(釋氏源流)중 항복화룡(降伏火龍)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민족(紙) (27.2×18.0cm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 한 장면으로 마가다국의 유명한 수행자 집단인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기 위해 독룡을 항복시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섭을 만나 독룡의 방에 들기를 청하고, 독룡의 방에서 독룡을 항복시켜 독룡을 작게 만들었다. 발우에 독룡을 담아 가섭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묘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은 불법에 귀의했고, 불교는 거대한 교단을 형성해 본격적인 교화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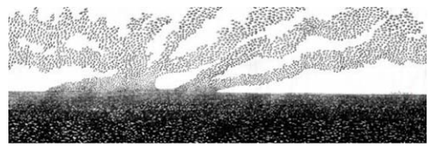
석씨원류에 부처님은 배화교도였던 가섭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위해 마가국 수도였던 왕사성으로 향하다 가야산에 이르러 '타오르는 불의 법문'을 설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불타고 있다. 형상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불타고 있다. 어떤 불에 의해 타고 있는가? 탐욕 · 분노 ·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불길들은 왜 일어나는가? '나' 스스로가 일으킨 망상이 부싯돌이 되고 불씨가 돼 어리석음의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고 탐욕과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모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가지 독의 거센 불길로 인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가지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오직 '나'에 대한 애착 때문이니, 세가지 불을 멸하려면 먼저 '나'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려야 한다. 나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게 되면 세가지 불길은 스스로 꺼지고 윤회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멈추며, 모든 괴로움은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불의 법문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끄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만행일기(始)

땅 끝 마을,
보길도 가는 마지막 배가 땅거미처럼 내려 앉고.
어둠이 바다를 잠 재우며 슬며시 나를 밀쳐낼 때에.

발끝에 모아진 수 많은 길들이
내 몸에 새겨진 문신을 꺼내었다.

밤은 나그네를 업신여긴다. 그러나 밤은
나그네를 가장 나그네답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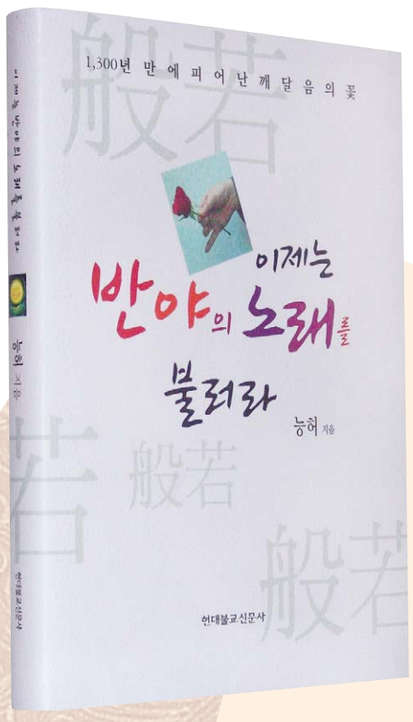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문신을 새겨 넣었다.

바닷길 억 만리는 왼발에 묻고
하늘 길 억 만리는 오른발에 묻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 에 피 어 난 깨 달 음 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 · 역학 · 비법전수
순한글과 숫자로만 30일을 공부하여 복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참제자를 구합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사주를 통달함
(스님,법사,일반인 출장지도)
010-5668-5775
보현불교 역학대학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초능력 기공비법 무료전수
※봉사활동으로 평생직업 무료전수
㉮ 수강료 납부 곤란한 재정 형편자
㉮ 고졸이상의 신심견고한 불자여성
㉮ 40~50세의 숙식가능한 불자여성
㉮ 참신성 진취성에 걸림없는 불자여성
02)584-8844
011-354-8484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氣 치 료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각종 질병
(대체의학 비법전수)
중국교포 출장 방문
010-9137-1667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 스님 및 포교사 특혜 *
041)576-0633
네이버에서 '연화도법'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도안 합장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수강생모집
명리 · 궁합 · 택일 · 작명 · 육효 · 자미두수 그 외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역학연구 30년 유명교수 강의 속성완수
032)508-0381
019-9007-9746
인천 불광사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 못 본분
*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 전후 상담
TEL 02)835-2955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역학 개인지도
한문을 전혀 몰라도 한글로 한달만 배우면
(역학,사주,신수,재수 등)을
통달하는 비법을 1대 1로 전수해 드립니다.
052)264-8183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불화그림 배울분구함
남 · 여 20~30세
노원구 상계동 전철4호선 당고개역 부근 화실
011-257-4601
02)931-2287

미얀마 사야도 사마타 명상지도
명 상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문의 033)433-3847
건봉사

염불원 강습
●상주권공 : 겉채비 안채비 한글의식 포함
사찰정보안내
●부동산,소임,공양주,재도감
서울역 도보 남산 남대문근처 사찰거주房. 상담可(學人)
우리절 02)757-3725

청정한 나반 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약사기도도량 약천사에서 같이 도량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전남 구례군
061)781-6328
017-621-63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위치 : 정릉
02)917-336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칠곡
016-521-0003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실, 건강하신분
(부산 가야동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 공부 · 요양 할분 모십니다
1인 1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016-9506-5706

비구니스님 15년 이상 염불하신 기도잘하는스님, 공양주보살님(60세이하) 모십니다 (침식가능하고 음식잘하는분. 월보시 130만원)
054)762-4269
010-3156-9797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53)313-5908
011-527-5908

서울 도봉산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 하실분 모십니다
1인1실(선착순)
02)954-984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55세사이)
사무실, 종무실 경리(女)도 모십니다
유경험자에 한함(숙식가능자)
052)298-9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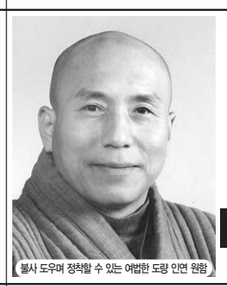
사찰 사무장 구합니다
(월 60만원) 진주시
011-595-3973
055)744-3973

인연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조계종사찰입니다
▷숙소:원룸(욕조,씽크대, 화장실)제공합니다
011-422-6757
041)545-6531

영선기사
(전기,보일러,수도배관,용접)
숙식제공
130-150만원
(포교사 자격증 有)
011-9239-8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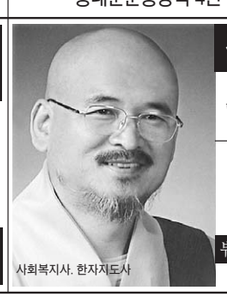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백도현 구성학강의
운명 · 운세 · 방위학 · 개운비법
참재미있고 쉬운 易學! 「천년지혜 밀교비전」
특별한 암기법 / 단기속성, 개인관리학습 / 실전임상
불교종단에 다년간 초청강사경력
011-9735-1742 [종로5가 7번출구 청계천방면]


불사 도우며 정착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7일(월) ~ 7월 16일(수) - 10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교육
● 교육비 전액무료, 선착순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010-9400-8350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2)584-8844 / 010-9137-1667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지향할 수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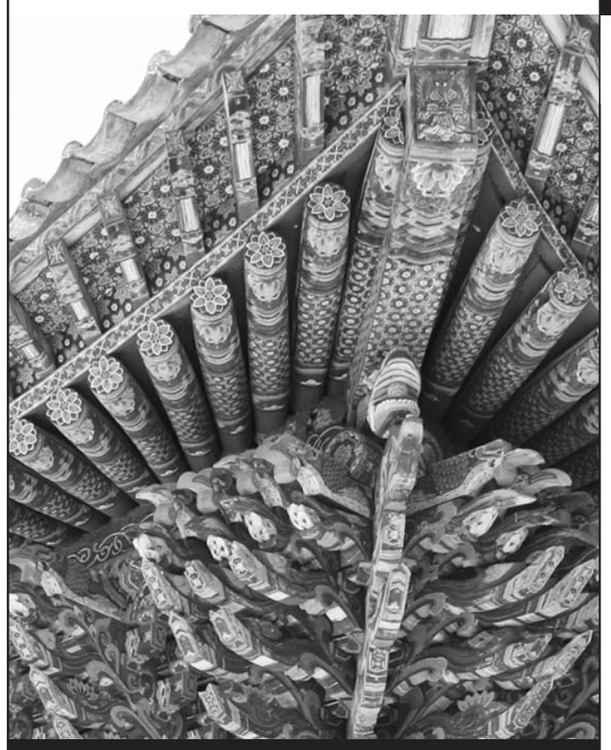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수강료 :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4기모집
6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6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를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 (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 자연석 높이 15m, 가로 50m

● 건물:법당 및 요사채 400평(6동)
● 대지:2500평 임야: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유곡,주변 직벽암반 경관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가능(12m 도접)

※ 가액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 ~ 3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 위치 : 서울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법당 : 28평	● 법당 : 22평
● 요사 : 60평	● 요사 : 38평	● 요사 : 25평
● 부지 : 700평	● 부지 : 170평	● 부지 : 191평
● 가액 : 3억	● 가액 : 10억	● 가액 : 7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다부동 예술대방면
● 법당,방2,거실(총25평), 작은 마당있음
● 공기 맑은 산밑 토굴로 조용히 공하실분들께 적합
● 가액:보증금 시설금 합 1700만원

010-5063-27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두루1동
● 35평 3층건물중 2층
● 법당,큰방2,주방1 욕실,화장실
● 삼존불 및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847-5150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영동역 2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대지 200평, 300평, 600평, 1000평
● 평당 13만원

010-3545-9992
043)732-27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도심사찰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20평, 스님방, 종무소 20평
● 가액 : 5억6천만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송
● 대지 : 1223㎡
● 요사 : 37평, 법당 : 1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0-8861-9856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천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 찰 안 내

괘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인생을 즐기십시오
● 위치 : 경기 김포시
● 법당 50평, 요사채 30평, 방3 대지 1206평 법당시설완비
● 가액 : 14억원(시설비 포함)

010-9112-9712
032)576-9712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대로옆(항공산업도시)
● 대지 : 42.5평(07.11월 준공) 시부지 터밭 약간
● 1, 2층 각24평 2층 : 법당 15평, 방2, 주방1 포교원, 시민선방, 친견소 최적지, 현 기도중
● 가액 : 1억4천만원(절충가능)
● 사유 : 건강상(꼭 필요한분만)

010-4668-2061
(부재시 음성녹음요망)

사찰(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최고의 명당 자리)
● 정남향 약 2,000평
● 평당 23만원

010-3524-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번지 여래암
● 대지 1700평, 법당 36평 요사채 방 2칸 (앞 에 바다가 잘 보임)
● 가액 : 1억6천

011-9424-1005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도심속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7분)
● 평수 : 23평(2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전세 4500만원. 양도가 9000만원

010-7669-8600

사 찰 안 내

● 소백산 도솔봉에 불사중인 도솔사
● 전망 최고. 현재 산신각, 작은법당만 증축되었음
● 대지 345평
● 전체 터 약1,000평 (전 평수 다져져 있음).
● 장뇌삼 3,000평에 심어져 있음

011-9426-75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양목기차역 맞은편
● 건평 : 약 45평
● 2층 건물중 2층, 아주편리함
● 법당, 큰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700만원
● 스님 LA 파견으로 급 안내함

017-217-1919
054)974-030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진주,고성,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 절충가능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건물만) 도지 : 1년에 쌀 한가마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절터 · 요양원 · 기도원

● 위치 :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국도 귀래IC에서 5분거리
● 임야,농림 관리지역 71,124㎡ (21,552평)
● 가액 : 4억3천만원

010-3762-304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 142 황룡사
● 대지 406평
●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
● 심야보일러, 에어컨 완벽하게 설치
● 가액 : 3억 2천만원

054)762-7389
011-542-0982

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요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로변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1-538-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버스정류장 앞, 부평시장 역세권
● 평수 : 120평
● 방 3, 창고방 1, 창고 1,
● 공양간 大, 주방 2, 화장실 2 삼존불, 지장소불 120불
● 시설 최우수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2)519-1108
010-4545-1108

600년된 벽조목(霹棗木)

● 양도가액 3천만원
● 벼락맞은 대추나무뿌리
● 사진 자세히 보실분 다음까페 부처골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054)383-8553
011-9585-49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 법당1동,방1칸,부엌 요사채 1채,콘테이너 방2칸
● 사용승락서 득함
● 청정계곡으로 산야초등
● 스님께서 수행하시기 좋은곳임
● 넓은 텃밭도 있음
● 시설비품일체무료로 드림
가액 : 2천7백만원

010-4660-5388

토굴저렴하게 임대

● 위치 : 경남서부지역 진주인근 2층조립식 50평
● 심야전기보일러 500미터 지하수
● 대지1200평(녹차밭 200평) 주차장 300평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승려복지차원에서 수행중 요양이 필요한 비구니 2분스님에게 임대

011-590-9794

사찰터 최적지

1.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반야계곡 밭 1200평(평당 8만원) 자연석 약 5천만원 보유
2.충북 단양군 천동굴 옆 소백산 아래 밭 3000평(평당 4만원)
3.충북 제천시 수산면 남한경옆 임야 1540평(평당 7만원)

016-464-6386 한산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 4층건물중 4층
● 평수 : 45평
● 가격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시설 A급
● 주차장완비, 즉시 법회가능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010-6416-5589

서울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역 8분거리 천호시장 사거리 뒤 번화
● 법당,방,주방(1층), 관음불 후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만원, 답사후 절충
● 스님 혼자 계실 분 적합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꼭 오실분만 연락

010-9954-3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보령
● 신축사찰. 정원 800평
● 요사채,법당,삼성각,관음보살,탑
● 교통편리 인연있는 스님 계시면 저렴하게 양도함

011-340-4478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동상동 김해 재래시장옆
● 3층 단독 46평,법당,요사,주방 (약사불,지장불,관음불, 각단후 불탱화)
● 사찰비품일절,최상급 시설
●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25만원도가능) 시설비 방문후 절충

010-9308-7913
055)321-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IC 6킬로미터 지점
● 대지:435평(주차장완비) 법당:15평 콘크리트 산신각:3평 콘크리트 요사채:41평(심야보일러)
● 가액:1억 5천 7백만원

011-9596-1115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 국 사찰 암 자 포 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 개합 니 다

포 교 당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 대지 : 300평 ● 가액 : 1천만원

054)633-010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천시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46평
● 2층 건물중. 1층 : 종무실, 공양실, 주지실, 화장실 2, 방 5, 2층 : 대웅전(47평) 별채 : 약 50평 건물, 위패단 및 지장도량
● 모든 집기 그대로 양도합니다
● 가액 : 15억(절충가능)

010-9757-72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1-9725-3196

포교원 (급)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 최신에어컨 4대 무상으로 드림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42)252-5480
011-64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상담 후 절충가능)

011-879-75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광안 2동 해수욕장 3분거리
● 평수 : 55평(반지하)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즉시 법회가. 몸만 오시면 됨

011-9526-9022

전세 보증금만으로 4층건물 양도 받을 수 있는 찬스

● 대지 : (약)48평, 건평 : (약)36평
● 1층–가계 , 2층–불교미술 철학원, 3층–학원, 4층–주택
● 매도금액–3억 8천, 대출–2억 전세보증금–6천 5백, 월 60만원 건물전체 리모델링함

010-2212-4984 / 051-638-4984
우암초교 정문앞. 우암동사무소

불자정보 계속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0>

(修習止觀坐禪法要)

정수행(正修行) ④

아홉가지 부정관으로 탐욕 대치

起信論云 若心馳散 卽當攝來 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 無外境界 卽復此心 亦無自相 念念不可嘚 謂初心修學 未便得住 抑止令住 往往發狂 如學射法 久習方中矣

'기(起)'는 발심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신(信)은 올바른 믿음이다. 즉 대승상근인이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신론(起信論)'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마명보살이 지었는데, 수행인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신론에서 말한 내용의 요지는 마음이 분주하게 밖으로 치구하면서 육진경계로 흘어지면 수행자는 즉시 마음을 거둬들여 정념(正念)에 안주시킨다는 의미이다.

정념이란 망념이 끊어진 무념의 상태인데, 이 정념으로 인해서 일체 망념을 타파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만법은 유심이어서 내 마음을 떠난 밖에 따로의 한 법을 찾으려 해도 끝내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체 제법은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법은 내 마음이 자체가 되어 마음밖에 따로의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법계성이며, 그 가운데에 만법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일체 만법이 내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방향이 없고, 분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상대적인 한계도 없어 그 자체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끝내 자체를 얻지 못한다 해도 모든 삼라만상이 마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는 마치 허공이 본래 뭇 형상이 아니건만 모든 형상이 허공을 의지해서 발현하는 것과 같다. 때문에 삼라만상이 허공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낱낱의 사물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해도 마음은 담연하고 적적하여 끝내 존재해 있는 것이 없이 오직 곧은 마음 정념일 뿐인 것이다. 이와 같다면 망상을 그치려 하지 않아도 그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오묘한 지(止)를 홀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초로 발심 수행하는 사람이 지 수행을 할 때 잠시라도 마음을 안주하지 못하면 애써 억지로 제압하여 망상을 그치고 정념에 안주하려 하는데, 애를 쓸수록 더욱 더 마음이 급해져 병통이 무더기로 일어나 미치거나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지 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급하게 마음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옛날 조주스님은 삼십 년 동안 잡된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또 어떤 스님은 사십 년간 포단을 지킨 후에야 도와 일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수행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치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 줄을 서서히 조율하여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게 오래도록 하다보면 거문고 줄이 알맞게 조절되고 퉁기는 손가락도 적합하여 자연스럽게 오묘한 소리가 흘러나온 것과 같다.

정념으로 일체의 망념 타파할 수 있어
초심범부 수행법으론 '구상관' 이 으뜸

또 활 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오랜 기간 서서히 익혀야 만이 표적에 적중할 수 있는 것과 같다.

二者修觀有二種 一者對治觀 如不淨觀 對治貪欲

두 번째로 관 수행에 대해 밝히고 있다.

관 수행도 역시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대치관(對治觀)인데, 부정관(不淨觀)으로 탐욕을 대치하는 것이다.

대치관은 보조수행의 의미로서 조관(助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기 마음가운데 번뇌를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고 어두운 범부는 미혹한 집착이 지나치게 많아서 색진경계를 마주할 때마다 간파하지 못하고 좔라좔라 탐진치 등 갖가지 망념을 일으킨다.

수행자가 좌선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마음속에서 일으킨 망념 중 어떤 것이 가장 큰지를 관찰해야만 한다.

탐욕의 망념이 많으면 반드시 부정관(不淨觀)으로서 대치해야만 한다. 그 수행방편으로는 사념처(四念處), 구상관(九想觀), 오정심(五停心) 관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탐욕을 대치하는 부정관에 소속된다.

초심범부를 구제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수행법이 가장 근기에 알맞고 이익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구상관'이 으뜸이다.

구상관은 아홉 가지 가설적인 상상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중생은 애욕으로서 자기의 올바른 성명(性命)을 삼는다. 세간의 오욕락을 탐착하고 거기에 빠져 삼계생사를 윤회하기 때문에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아홉 종류의 부정관법을 수행하여 중생들의 망념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였다. 이 구상관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자연스럽게 탐욕이 없어진다.

구상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바람이 들어 팽창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가령 사랑했던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이 끝나면 시체는 짧은 순간에 퉁퉁 부어올라 마치 부대에 바람을 채운 것처럼 본래의 모습과 다르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두 번째는 시체에 반점이 생긴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이는 시체가 바람을 맞고 햇볕에 쪼이면 피부에 붉은 점, 누른 점, 어혈, 검은 점, 푸른 점 등 갖가지 반점이 나타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세 번째는 시체가 파괴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이는 시체는 바람과 햇볕에 의해 변화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죽과 살코기가 파괴되어 몸과 머리와 발 등이 산산이 파괴되고, 심장 간장 비장 폐장 등 오장까지 부패하여 악취가 외부에 까지 흘러넘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네 번째는 시체에서 피가 질펀하게 흘러내린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피고름이 흘러넘쳐 더러운 것이 땅을 적신다고 생각하는 관법이다.

다섯 번째는 고름이 흐르고 썩어 문드러진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이는 시체의 몸 아홉 구멍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피부와 골육이 무너지고 썩어 땅바닥에 낭자하게 흩어져 심하게 악취가 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여섯 번째는 벌레가 뜯어먹는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피고름이 나고 썩어 문드러 진 후, 시체를 벌레나 새나 짐승들이 뜯어먹어 잔혹하게 그 껍데기를 벗긴다고 생각하는 관법이다.

일곱 번째는 시체가 흩어진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이는 시체를 짐승들이 먹고 나면 분열되고 흩어져 수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고 관찰하는 관법이다.

여덟 번째는 백골이 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시체가 흩어진다고 상상한 다음, 시체는 그 뼈가 드러나 피부와 고기는 이미 다하고 단지 백골만 낭자하게 흩어졌다고 관찰하는 관법이다.

아홉 번째는 시체를 태운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시체가 백골이 되고 난 후에 불에 타 연기와 냄새 속에서 폭발하고 흩어져 불이 꺼지면 재와 흙이 동일하게 된다고 상상하는 관법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아홉 종류의 부정한 모습을 가상으로 관찰하나 이 방편을 사용 했을 때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부정관으로서 탐욕을 대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식상(識相)의 의미 ①

'식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그 개요만을 '유식론'에서 인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마다 갖추고 있는 여덟 개의 심식, 즉 '식'이라는 한 글자는 그 하나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경계를 동시에 내포하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심식이 인식할 대상경계가 없다면, 주관적인 인식활동의 특징적인 모습인 '식'이라는 명칭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유식(唯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심식의 활동만 있을 뿐, 아예 현상사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식학에서는 단지 우리의 심식 밖에 홀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식'에는 많은 명칭이 존재하는데, 심(心) 의(意) 요별(了別) 분별(分別) 현행(現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운데서 '심(心)이라는 명칭은 여덟 개 심식에 두루 통용됩니다.

식은 독자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반드시 대상경계를 동시에 내포

그러나 특수한 의미의 측면에선 제팔식만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제팔식만이 집기(集起)라는 특성적 활동의 모습이 다른 식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집기의 의미를 부연하면, 전칠식이 현행으로 활동하면서 훈습한 모든 종자세력을 제팔식에 함장하였다가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 다시 전칠식의 활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윤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유독 제칠식만을 '의(意)'라고 명칭하는데, 그 이유는 여덟 개 심식 가운데서 사량(思量)의 특성이 가장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사량이라 하는 것은 제팔식의 견분(見分)활동을 자체 심식 내의 작용인줄 모르고, 그 견분을 항구하게 살피면서 그것을 실재하는 아상(我相)으로 사찰양탁(伺察量度)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육식을 총체적으로 '식(識)'이라고 하는데, 이는 따로따로의 대상경계를 명료하게 식별하는 작용이 여섯 개 모두가 공통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식'이라는 한 글자는 일체유정들이 각자 갖추고 있는 여덟 개 심식을 총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684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 50평
- 법당 :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010-3553-789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요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1, 5층 석탑 2, 용탑 2
- 가액 : 3억5천 ●스님 노환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사찰 안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 대웅전10평, 요사채25평 현 문중땅 300평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3,500만원

010-3762-3049

암자(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주차유)
- 대지 : 62평 ●법당 27평
- 삼본불, 지장단, 산신당 2평
- 요사 : 방 2, 서실 등 공양간 27평 입구별도, 다용도실 4평 전기판넬(다락유)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융자 6500만원)
- 직접방문 후 결정, 절충하세요

011-842-6123 (주지 직)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동지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사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쇠락한 불교 다시 일으킨 수나라 황제보살

<12> 수(隋)의 건국과 문제(文帝)의 불교부흥



그림 · 김홍인

중국 천하가 남북조(南北朝)로 양분됐을 때 300여 년 분열기를 종식시킨 것은 수(隋)를 건국한 문제(文帝)다. 그는 북주(北周)를 멸한 뒤 남조의 진(陳)을 병합해 역사상 세 번째로 중국을 통일시켰다. 후한시대 위 · 촉 · 오 삼국 시대부터는 400여년만의 일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문제의 통치를 '개황(開皇)의 치(治)'라 평가한다. 이는 문제가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침공 실패 등 몇 가지 실책은 있었지만, 문제의 치세가 중국인들에게 몇 백 년 만에 안정을 줬음을 평가한 말이다.

문제는 또한 '황제보살'로 자칭했던 양무제(梁武帝)와 유사하게 스스로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고 칭할 정도로 불교를 신봉했다. 수많은 불사를 일으켰고, 나아가 중국불교의 발전에도 중요한 사상적 작용을 일으켰다. 중국불교사에서는 양무제와 수문제를 '양대(兩大) 황제보살'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국 거사불교를 논함에 있어 수나라 고조(高祖)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수많은 사찰·탑 건립 중국불교 주도권 회복
남·북 차별성 통섭시켜 종파불교 기틀 마련

문제의 본명은 양견(楊堅; 541~604)이다. 기록에는 동주(同州; 현재 섬서성 대례현 일대) 반야니사(般若尼寺)에서 태어나 어려서 비구니 지선(智仙) 스님이 양육했는데, 지선 스님은 그를 '금강불괴' 의미를 지닌 '나라연(那羅延)'으로 칭했다. 13세에 속가로 돌아간 문제는 황제에 즉위한 후 자주 신니(神尼; 지선 스님)에게 "내가 황제가 된 것은 부처님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사리탑에 신니 지선 스님의 형상을 새기도록 명했고, 개황(開皇) 13년(593)에는 "제자가 옛날에 삼보(三寶)에 적을 뒀던 인연으로 현재 1000년 동안 운이 창성할 국가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선포했다. 문제의 불교적 반연과 불교에 대한 신심은 대단했다.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隋書)>에는 문제가 즉위 초년인 개황 원년(581)에 주(周) 무제(武帝)의 폐불(573-577)로 인한 회복을 위해 "출가를 원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수를 헤아려 비용을 제공하고, 경전과 불상 등을 마련하라. 경사(京師)와 병주(幷州), 상주(相州), 락주(洛州) 등의 커다란 도읍에는 관리들에게 경전을 사경하게 해 사찰에 보관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천하의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민간에 불경을 육경(六經)의 수십 배가 되도록 비치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는 불교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며, 민간의 불교신도는 폭넓게 증가했다.

문제는 개황 5년(586) 법경(法經) 법사를 청해 대흥전(大興殿)에서 보살계를 수지했다. 그 다음 해에는 담연(曇延)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수지했다. 문제는 점차 깊이 불법에 매료돼 '호법거사(護法居士)'라 자임했다.

무제의 폐불에서 사찰과 탑의 건립이 일반 민중 교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 문제는 수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했다. 도선(道宣)의 <석가방지(釋迦方志)> 권하의 통계에 따르면, 문제의 재위 20년간 "새로운 사찰 건립이 3792개소, 사경(寫經)이 46장(藏) 3853부(部) 13만2086권, 조상(造像)이 10만6560구(軀)"라고 했다. 이런 수치는 수대(隋代) 불교를 크게 부흥시키는 기본적인 작용을 했다. 특히 주로 북방에서 이뤄진 사찰 건립은 주 무제의 폐불 후 남방으로 넘어간 중국불교 주도권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제의 이런 노력은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유랑민에 대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남북조 말기 잦은 전란으로 발생한 대량의 유랑민은 특히 북조 말기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전(均田) 수전(授田) 등 정책을 실시했고, 또한 모병을 통해 군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전란 속에 군대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적은 농토와 과중한 세금 때문에 땅을 받아 양민으로 전향하려는 사람은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원했지만 국가의 승려수 통제로 인해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도승(私度僧)이 대량으로 늘었다. 사도승 중에는 참다운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았지만(후에 선종(禪宗) 4조(祖)로 추앙되는 도신(道信) 선사도 사도승 출신, 많은 수가 무리지어 민간을 떠돌며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켰다. 심지어는 반도(叛徒)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나라 건국 초에는 이런 사도승 문제가 존재했다.

개황 10년(590) 담천(曇遷) 스님 건의로 문제는 "모든 사도(私度) 승니(僧尼)들의 출가를 허용한다"는 조서를 내렸다. 이 조서는 바로 효력을 발휘해 <속고승전(續高僧傳)>에는 "사도의 승니 50여만 명이 동시에 수계했다"고 전해진다. 문제의 사도승을 인정한 칙서로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문제는 여러 곳에 관립 사찰들을 건립했다.

문제는 불교 교학에 대해 장안(長安)을 중심으로 교화의 기구로서 당시 모든 학파의 유명한 학승을 초빙해 '오중(五衆)'을 세웠다. '오중'은 열반중(涅槃衆) · 지론중(地論衆) · 대론중(大論衆) · 강율중(講律衆) · 선문중(禪門衆)을 말한다. 각각의 '중'에는 또한 중주(衆主)를 설정했다. 열반중은 <열반경>을 중심으로 불성론을 주로 논했는데, 중주는 법총(法聰) · 동진(童眞) · 선주(善胄) 등을 삼았다. <화엄경> 중심의 지론중의 중주는 혜천(慧遷) · 영찬(靈璨) 등이다. 대론중의 '대론'은 <대지도론>이다. 주로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했고, 중주는 법안(法彦) · 보습(寶襲) · 지은(智隱)이다. 강율중은 계율을 주로 했고, 중주는 홍준(洪遵) 등이었다. 선문중은 수정(修正)을 위주로 중주는 법응(法應) 등을 삼았다. '오중'은 이후 종파로서 전개됐다.

이외에 문제는 개황 12년(592) '오중'과 유사한 교화조직으로서 '이십오중(二十五衆)'을 건립했다. 중주는 전국에서 뛰어난 고승 25인을 삼았다. '오중'과 '이십오중'의 교화기구는 불교를 국가 통치권 내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승관(僧官)을 설정해 불교를 황권에 복속시킨 북조(北朝)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수문제의 고향이 북조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이로부터 중국불교는 철저히 국가권력에 종속됐다.

사상사 입장에서 문제는 중국 통일 후, 남 · 북으로 크게 양분된 불교 교학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작업은 문제의 아들로 후에 양제(煬帝)로 즉위한 양광(楊廣; 569~618)이 극진히 모신 천태 지의(智顗; 538~597) 대사에 의해 실현됐다.

양제는 비록 친부 문제를 모살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특히 지의 대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문제 재위 당시 '지자(智者)대사'의 시호를 추숭했다. 지의 대사는 당시 "남방에서는 세 부류, 북방에서는 일곱 부류, 뜻으로 세분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었다(南三北七, 義成百家)"고 칭한 수많은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종합했다. 지의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제반 불교학설을 법화(法華)와 반야(般若)사상을 중심으로 통합해 천태학을 제창했다. 지의 대사의 천태학은 남 · 북으로 양분된 불교학 통섭의 필요에 의해 출현됐다.

문제는 불교만 중시하지 않았다. 황제로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유교와 도교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도 있었지만, 문제가 수를 건국할 때 도사 초자순(焦子順)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다. 황제 즉위 후 문제는 초자순을 위해 '오통관(五通觀)'을 세우고, '천사(天師)'로 삼아 자주 국사를 의논했다. 유교도 숭상해 정치윤리의 기본관념으로 삼고 '태학(太學)'을 설립해 유학을 교육했다.

유 · 불 · 도를 함께 존중한 문제의 태도는 남 · 북조의 황제들의 기본적 입장이었고, 불교가 전래돼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했었다. 문제 재위 당시 이사겸(李師謙), 왕통(王通)은 '삼교일치론' 등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중국 천하를 통일해 수나라를 건국했다. 그에 따라 황제보살로서 무제의 폐불로 인해 쇠락한 불교를 부흥시켰고, 사상적으로도 남북의 차별성을 통섭시켜 본격적인 종파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제의 이런 업적은 중국불교 발전과 거사불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제 적 공 고

대 한 선 불 조 계 종

● 사찰명 : 무진암
● 주 소 :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 직 위 : 총무원장
● 법명(속명) : 영곡 효주(설덕곤)

● 사찰명 : 효타암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 직 위 : 교육원장
● 법명(속명) : 효타 원공(박정수)

위 스님은 본 종단 스님으로서 불기 2552년 5월 21일(양) 부로 직위해제 및 재적 되었음을 이에 공고 함

불기 255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1동 426-26번지

대한선불조계종종단대표 원 경

- 임 원 -

종회의장 설봉 사무총장 송암 감사원장 종상
교육원장 혜각 포교원장 승호 총무부장 무애 재무부장 정해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1년 (서울,경기 의식기준)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대 상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 수강 가능
5.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7.수 업 료 : 매월 10만원
8.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대행스님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실상이면서 실천!

마산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와서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그 길잡이를 맞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가는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서 미래의 정신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물질에만 여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신계를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고,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사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마산에 왔으니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 사람들은 불교라는 것이 만날 미신만 숭상하고 그러는 종교인 줄 알았답니다. 거기에는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기독교, 가톨릭, 통일교의 여러 분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라고요. 상점 간판마다 이름이 있듯이 종교도 그와 같습니다.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만약에 귀머거리가 "나는 뇌성벽력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천둥 치는 걸 모른다. 그러니 천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머거리 아닌 사람이 듣고는 "아, 천둥 번개가 왜 없느냐. 지금도 천둥이 쳤다. 네가 못 듣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말입니다, 불교라고 할 때, 불(佛)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바로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똑같으니 그 아픔이 똑같고, 아픔이 똑같으니 부모자식지간 또는 형제지간도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벌레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벌레도 생명이 있고 귀중하지요.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이 사실도 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무상하다고 하지요.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말하는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직결돼 있는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돼야 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토막토막 끊어서 했는데, 두서없는 말이라고 흉보지 마시고 잘 새겨들으세요. 인연성,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점에 가서 뭐를 사도 인연이요, 꽃을 봐도 인연이요, 마당을 걸어도 인연이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과 인연이요, 불을 봐도 불하고도 인연이요, 모두가 인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크고 작고 못나고 잘나고 높고 낮고 이런 게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지렁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만봉봉에 연꽃 피어 싱긋 웃으니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었더라.

한마음 도리에 근본이 들었으니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든 생명과 모습들은 다 거기에
한마음, 한법, 한마당, 바로 한발로 디뎠느니라.

그런 이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수없는 불바퀴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뚱이는 지금 스러져 가고 있을 겁니다.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어디서 생겼나? 이게 인과성, 인연성에 대한 얘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은 모두 여러분 속에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전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보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가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지켜보신다면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선은 거기에 뭉쳐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을 설하신 거지요. 고(苦)라는 것이 고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덩어리를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끌어 드리는 공부는, 마음은 체가 없으니 마음과 마음,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하면 모든 내면세계나 외부세계를 한데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 마음을 움죽거리는 거, 말없이 말을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돌아가는 무정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서, 모두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 마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마음' 하는 것은 모두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하는 겁니다. 한 부처님께서 한 꽃을 들었을 때에 그 꽃 안에 이 세상만사가 다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를 잘 재서 '하나'로 돌아가신다면 됩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봤을 거고, 어떻게 상대성 원리가 있을 거고, 어떻게 부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지, 모든 그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무시요 일종무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지도 않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생각 하나 잘하면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못 벗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으시겠죠. 사실 눈 뜨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심안으로는 이 세상만사를 다 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은 세상만사를 다 탐험하면서 다 듣고, 삼라만상 대천세계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의 그 말을 이심전심으로 다 듣고 다 움죽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고 좋고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처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대 성인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부처가 따로 있다 생각하고 또 조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은 따로 있고, 부처는 부처대로 따로 있고 법신은 법신대로 따로 있고, 문수 말입니다. 보현은 보현대로 따로 있고 약사는 약사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기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넓게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삼학(三學)은 삼학대로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계(戒)도 정(定)에 들고 혜(慧)도 정에 들었으니, 그 정마저도 모두가 공해서 쉴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니 어떤 걸 할 때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두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쓸 양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아마 다 전달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들어 보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컴퓨터도 있고,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탐지기와 또 신족통,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팩시밀리, 또 천이통 즉 무전통신기, 그리고 우리 천체망원경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재료로 주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어서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돼야만이 흐뭇하게 살 수 있고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시스템의 재료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믹서기로 비유한다면 재료가 있어야 거기다 넣고 갈죠. 그런데 재료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오신통의 시스템은 바로 믹서기와 똑같다는 얘깁니다. 어느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갈려 나오는 자동적인 기계와 같습니다. 우린 자동적인 기계와 같다 이겁니다. 무심도리의 자동적인 기계와 같은 이 자체는 여러분이 과거에 사실 때, 지금 우리가 살듯이 살 때에…, 이거부터 얘기해야겠군요.

미래의 과거는, 미래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가 과거입니다. 이 과거에서 볼 땐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buddhanews.com

모두가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

☞25면에서 계속

미래고, 미래에서 볼 땐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신세계와 이 지금 현실세계가 둘이 아니게 여러분은 그렇게 모두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교차로를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밤과 낮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응용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생각에 모두가 몰두해서 한마음으로 걸림 없이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만 얻는다면…. 그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물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또 늦게 왔다고 그래서 물리가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거에 입력됐던,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팔자 운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고 자꾸 그렇게 병고, 가난, 그 모든 고통과 이름을 갖게 했는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 팔자와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다 나오죠.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싸움 안 할 것도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분란을 마구 일으키게 조작을 하는 그놈들이 어느 놈들인가! 바로 내 속에 들어 있는 내놈들입니다.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 속에다 되맡겨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해라. 행복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가 행복을 갖다 줘라.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도 너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너다.' 하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아! 이것도 거기서 나온 것!' 하고 놓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따귀를 때렸어도 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거기다 놓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없다면 어떻게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겨나서 있으니까 나를 때렸지요.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고 가지 괜히 비비고 가나요?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잘해도 내 탓이요 못해도 내 탓입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듯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들어서 이 세상을 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아서 입력이 다시 될 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니까, 인과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하는 모두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카세트에 넣었던 것도 되넣으면 앞서 넣은 게 없어지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리는데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다면 팔자나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고가 붙을 자리도 없어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바퀴의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시걸랑 지금 시쳇말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혹성이 있기 때문에 별성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마음들은 별성인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별성도 옷을 벗고 바로 같이 이 세상에 환생을 해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소리죠.

시공이 없이 돌아가면서 체가 없는 마음 마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즉 말하자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많이 나와서 그 입자가 분자가 돼서 이 혹성 바깥에 이렇게 세 겹으로 여섯 겹으로 첩첩이 싸고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신통을 블랙홀이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누진통을, 즉 레이더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레이더망은 무엇을 합니까? 들이고 내는 소임을 맡았고 통신하는 소임을 맡았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물질이니까 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지구 바깥에도 그렇게 자기소임을 다하면서 입자가 바로 분자로 화해서 바깥을 지키고 있는 그런 3단계가 있는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혹성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소임을 어디에서 다하고 있느냐? 법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 법계는 무엇이냐?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그렇게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이 지금 이 허공에 꽉 차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 있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균성이나 병균이런 것들 뭐, 수많은 것이 다 그냥 접해서 사람이 못 살죠. 그런데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서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맙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도 고맙고 불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네?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한테도 다 고맙죠. 소임을 다 해 주니 말입니다. 또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 것만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장 육부, 바로 대장 소장 위장 간장 콩팥 방광 척수 척추 이자 식도, 이 모두가 전부 자기소임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고맙죠. 심장으로부터 그 모든 작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렁이나 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실 테죠?

> 여러분이 귀가 트이고 눈을 떠서 자유인이 돼야만이
> 흐뭇하게 살 수 있고 싱긋이 웃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잘 꿰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것이 다 생기고 제일 나중에 생겼다고 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뒤집고 뒤집어서 인간까지 됐으면…. 인간으로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좌천하는 수도 있죠. 만약에 독사가 된다면 독사의 집착과 그 의식이 그냥 거기에 모두 동결돼 가지고 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환토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 모습을 벗기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물이 다 똑같은 단물이라 할지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선한 여러분이 잡숫는다면 아주 좋은 피가 될 것입니다. 아주 맑은 이슬이나 비도 그 물은 똑같지만 약초가 먹는다면 사람을 살리고, 독초가 먹는다면 독이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바로 약초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쓴다면 독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팍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못해서 한 사람의 목을 끊을 때에 일곱 식구 여덟 식구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조심하고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기면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집일 뿐이지, 당신이 움죽거리라고 하는 대로 움죽거릴 뿐이지 진짜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얼마나 모두가 빛이 나실 건지 모를 겁니다, 아마.

잘못된다고, 잘못됐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잘못하다가도 잘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하다가도 금방 남한테 악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는 끝간 데 없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각각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도리가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실험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고 바로 실상이면서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가 따로 없이 우리 생활이 도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둥건둥하고 돌아갑니다. 요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진실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진실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세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독립군이 죽어 가면서 "까마귀야 까마귀야, 날 보고 웃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또 나를 이렇게 죽여서 산산조각을 낸다 한들 나야 어찌 너희들이 뺏으랴. 나야 어찌 죽으랴. 영원할 것이니라." 했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의 근본, 바로 자기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의식으로 뭉쳐진 것이니 바로 그 영혼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아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다스리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한생각의 도리를 실천한다면 우리 역사도 바꿔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삶도 경제도 기술도 지금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생각이 모든 것을 바꿔서 정말이지 신성하게, 땅도 넓어질 수 있고, 뺏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마음도 넓어질 수 있고 우리 살림살이도 풍족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고 평등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의리와 도리, 도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아서 인간의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손바닥 안에 넣고 연꽃의 향기를 두루 피울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덮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생각만은, 빛보다 더 빠른 이 마음 한생각만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깨친다, 안다 이런 걸 떠나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 자체가 내 한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참자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자기를 내동댕이치고 저 바깥에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 아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남편을 잘되게 해 주시오. 부모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다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신짓을 하니까 미신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미신짓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불교가 미신이나 믿고 어디에 국한된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끝간 데 없는 진리를, 평등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바로 불교인 것이고, 바로 생활이면서 진리인 것입니다. 음식이나 놓고 목탁이나 두들기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고 땀방울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끌고 다니는 그 근본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나의 이 두서없는 말이 어떤 뜻인지 좀 아실 겁니다. 그건 글귀로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고, 경구로도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가 빠지면 기도 넣어 줄 것이고, 모든 점에서 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파워를 일으키니까 세상만사가 다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이 파워가 일어나니까 다른 쪽도 파워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뭐.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6월 28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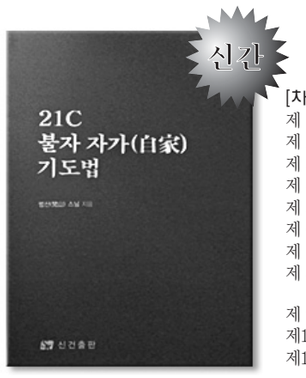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이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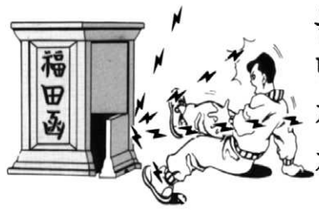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번역가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지만, 요즈음처럼 급변한 적도 드물 것이다. 유력한 상대 후보를 500만 표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어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세 달 만에 10% 지지대로 떨어지고, 연일 몰려드는 촛불 시위대들을 막느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마다 쥐 한 마리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경찰차로 막더니, 급기야 컨테이너 박스를 용접해서 '컨테이너 만리장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하였다.

이번 사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광우병 감염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 것 같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영어 몰입 교육'을 비롯하여 중요 정책을 마구 쏟아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한반도 대운하' 강행의 뜻을 밝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데다가, 내각 구성원과 청와대 고위급 인사에도 재산 축적 과정이 석연치 않은 사람들과 특정 종교와 학교 인맥을 위주로 하여 '고소영' '강부자'니 하는 우스갯말까지 나오게 하였다. 여기에다 유가 급상에 따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인물됨과 정책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전임 대통령과 전 정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국민들의 눈에 비친 그의 언행은 마치 하늘에서 "정권을 맡아야 한다"는 계시라도 받은 양, 언행을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마구 해대는 것에 다름없었다.

게다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봉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면,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려 노력하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도 "초를 사는 비용은 누가 댔느냐?"는 등등,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오만함만을 보여주었다.

뒤늦게 '나도 조금은 잘못했다'는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애를 쓰는 시늉을 하면서 각계와의 대화를 들고 나와 불교 · 개신교계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국민들의 바람[願]과 진솔한 목소리를 들으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엄(莊嚴)용 대화 모임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심지어 전임 대통령의 '말'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경박스럽지는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현실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이런 식의 면피(免避)용 · 장식(裝飾)용 대화 자리에 나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밥 한 끼 먹고 덕담 몇 마디 나누는 것을 자신들의 대단한 권리인 양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다. 스스로 대표적인 종교 교단의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따지고, 가서 할 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만 세력 때문입니다"와 같은 식으로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대신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질타할 자신감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러나 몇 차례 열린 각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해주고 국민과 대통령 자신을 위해 냉정한 비판을 해준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다.

잘 알듯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는 모든 종류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훈시'나 '지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6월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 전달에 불과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지만, '책임 회피용 의사(擬似) 대화'에 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기념사진 몇 장 찍고 온 종교지도자들 또한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⑱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희망이 없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던 사람들도 바뀌는 순간이 있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만날 때이다. 학생들과 어려움과 난관을 겪게 되는 그 때를 대비하여 마음에 희망을 주는 말을 저장해 좋았다가 꺼내 쓰기로 했다. 학생들이 절망 극복, 희망 전략용으로 내놓은 마음의 입력들이다.

희망 전략

○ **나는 잘 할 수 있다:**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한 구절이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왠지 이 말이 좋아서 마음에 품고 공부를 했다. 그러자 반에서 중위권을 맴돌던 내가 3등을 하게 되었다. 또 다쳐서 뼈가 어긋나서 끼워 맞출 때도 있었는데 무서웠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입력을 했더니 효과가 컸다.

○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이겨내지 못한다:** 올림픽을 보면 세계기록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본다. 목표를 정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마음에서 이 말들을 생각한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 일어나라, 어서!"

○ **힘들다고 하는 것도 행복이다:**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못 느꼈었지만 지금은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힘든 일들이 행복하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에 다투고 싶어도 그럴 가족이 없는 불우한 사람들도 많다. 또 공부하기 힘들지만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힘들다는 것도 행복인 것 같다.

○ **가족을 생각하자:** 나는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책상에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공부하기 싫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정말 효과가 있다. 힘들 때마다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가족사진을 꺼내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다.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한번 불끈 용기를 내게 되는 힘이다.

○ **인내심 강한 자가 승리한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는 하는 만큼 보답이 주어진다고 믿는다.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라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입력을 하며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

○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내 곁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이유이고,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이유이다.

○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는 어려움과 장애에 부닥칠 때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번 어려움만 극복하면 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함께 따라오게 마련인 것이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 **모든 것을 비운다:** 어떤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동안 모든 생각을 비운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한다. 그렇게 다 비우고 나면 천천히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별 것 아닌 일도 많고, 내 생각에만 집착해서 사실보다 강박관념처럼 부풀려진 걱정거리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걱정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을 비워본다.

○ **김00,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오만방자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입력은 결코 자만이나 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뇌의 5% 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미리 포기하고 가능성을 닫기는 싫다. 나머지 95%에 도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 남들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의 힘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평소에 올바른 마음의 입력을 해 두는 정진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험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수행도 '선택과 집중' 필요

수행도 사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고양의 덕양선원은 천수대비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도량이다. 덕양선원의 신도라면 누구나 천수다라니 수만 독을 하게 된다. 청계산 정토사의 경우 만일염불결사를 8년째 진행한다. 30년에 가까운 만일염불결사를 진행하는 정토사에는 한 시간도 끊이지 않고 염불이 흐른다. 해인사 백련암을 중심으로 성철 스님의 상좌 스님들이 운영하는 사찰들은 능엄주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 사찰의 사례가 새삼스러운 것은 한국불교는 다양한 기도와 수행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회와 재일기도 등 전해 오는 관습에 의존하는 사찰 운영에서 대표적인 수행법을 정하고 장기간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의 기능이 발전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도하고 법문 듣고 각종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사찰은 현대사회에 어울릴 수 없다. 사찰은 치열한 구도의 장이돼야 하고 뜨거운 학문탐구의 공간도 되어야 한다. 또 몸과 마음을 쉬는 곳이 되기도 해야 한다.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혼란을 주기보다 하나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심을 확고하게 하고 사찰의 이미지도 재고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통일나무심기 운동에 동참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시점에 시작한 이 운동은 그간의 물품지원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식량난과 벌목, 산림황폐화, 홍수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민추본은 우선 평양에 양묘장을 설립해 거기서 묘목을 길러 산을 푸르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통일나무심기 운동'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에는 나무를 심고 남쪽의 국민들에게는 북쪽 동포에 대한 민족애를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나무심기 운동이 불교 밖의 여러 단체들과 연계해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숭고한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부의 단체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민추본의 '통일나무 심기 운동' 선언은 그간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된 북한 나무심기 운동을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종단이 체계적으로 동참하고 불자들도 힘으로 모으고 정성을 보태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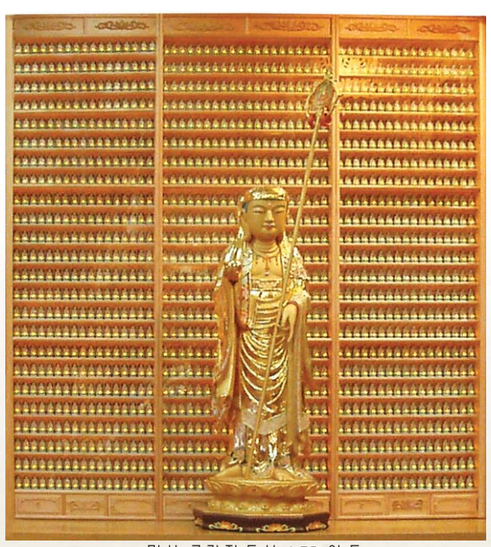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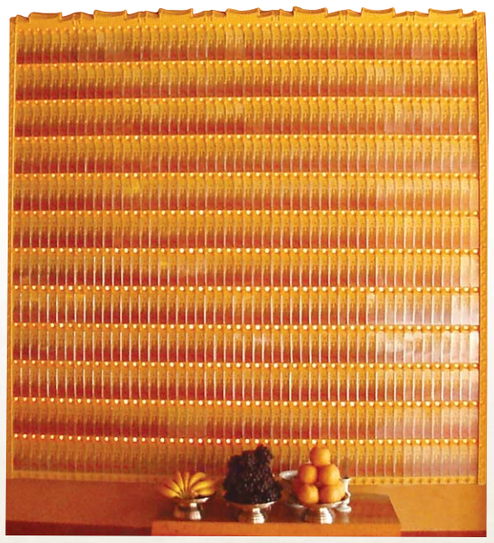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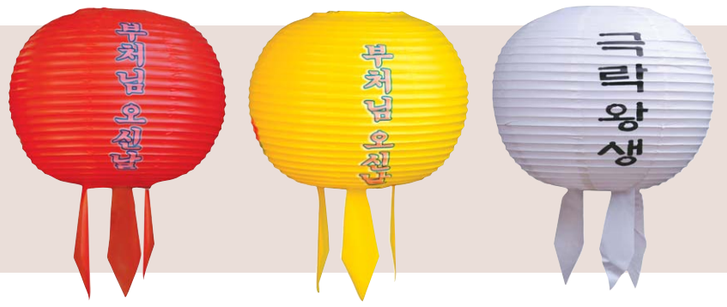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공 단 등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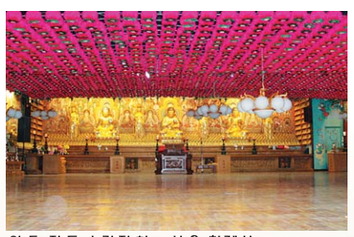

육각조립등


청사초롱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_ 대구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 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 (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 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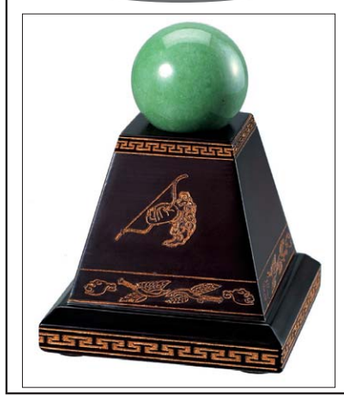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